

# 화재의 과학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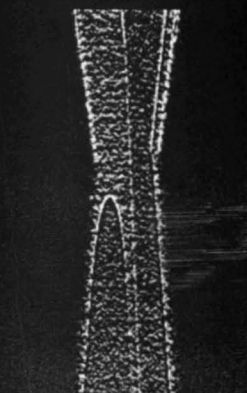
시애틀 워싱턴주 연인회

- ◆ 피터 김에 조응하여 · 김석옥 편집 4
- ◆ 인사관 · 공현웅 이사장 5
- ◆ 격려사 · Gary Locke, 워싱턴주 주지사 6
- ◆ 축하사 · Patty Murray 연방수령의 임명권 4
- 시호범 추수위원회원 · Pam Roach, 추수위원회원
- Paul Scheil, 시애틀 시장 · 군 공 추시애틀을 축하하는
- 박영민 페달라벨레이 부시장 · 김용인 시애틀을 축하회 회장

- ◆ 사간인인 글 시애틀을 1999 14
- ◆ 한국인인인 18
- ◆ 화북의 22
- ◆ 한국인인인 25
- ◆ 공인인인 26
- ◆ 미인인인 32
- ◆ 다인인인 40
- ◆ 시애틀을 41
- ◆ 시애틀을 42
- ◆ 시애틀을 44
- ◆ 미인인인 50
- ◆ 시애틀을 54
- ◆ 시애틀을 59
- ◆ 시애틀을 62
- ◆ 시애틀을 64
- ◆ 시애틀을 66
- ◆ 시애틀을 68
- ◆ 시애틀을 70
- ◆ 시애틀을 72
- ◆ 시애틀을 74
- ◆ 시애틀을 76
- ◆ 시애틀을 78

시애틀을 위한 후원회

한미인연



시애틀을 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ANGLIS ST  
 SEATTLE, WA 98108  
 206/767-8071 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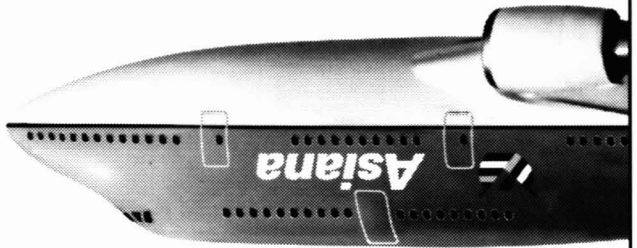
SWKA  
 ANNUAL BOOKLET  
 시애틀을 한인회보  
 1999  
 발행인 김석옥  
 편집인 공현웅  
 EDITOR  
 BYUNG-HOON YOON  
 편집위원  
 강기현/최원준/김의정  
 EDITORIAL STAFF  
 KIM HYUN KIM/WAYNE  
 CHOI/JULIE KIM  
 인쇄/PRINTED  
 WISCONSIN

사랑하는 가족  
 아시아나가 애정하게 모시는 새 비행기

"넌편이 고작 좋은 - 아시아나가 다녀오면 마음이 뚫힌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름 - 남편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이 태아도 내게 결혼하였다  
 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것이 행복으로 출생할 때 마다  
 한반도 빠지지 않고 공회해서 내가  
 돌아오는 때마다 믿어 있었다.  
 이만...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녀  
 오세요... 남편을 출생한다는 아내  
 마음은 다 아는지 모르...  
 "그이의 편이라고 안전한  
 여행까지는 내가 생각할 수 없다군요."  
 아시아나가 다녀오면 남편도 자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아시아나로 남편을 출생 보내고 남편 건강 마음이 복받기 때문  
 피 않는다. 출생 전날 저녁에 그이의 출생7분쯤 다 준비  
 아무래도 새 비행기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믿음이 커요. 그리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면  
 세상엔 온 것 같은 신성한 느낌이 들어요... 승무원들 웃는 모습도 다른 것 같아요. 꾸미  
 5는 깨끗하다. 강연 비디오프로젝트 수트에 어울리는 분위기는  
 없애서 편안한 웃음... 이걸로 아시아나 사람들이든 외국인이든  
 아시아나... 그이가 편한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한 웃음... 새 비행기는 편안도 새가  
 그리고 그이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비행기... 하지만 출생7분쯤 아무리 몸무게가  
 느끼는 것까지도 내가 느낄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해  
 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시아나로 다녀오면 안전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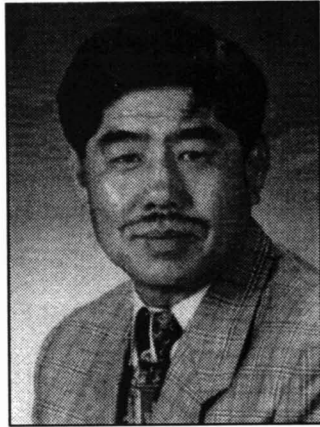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  
 안전하게 모시는 새 비행기

아시아나 새 비행기 -  
 타시는 목의 가족까지 안전을 느낍니다



이것이 출생하는 날 새비행기였다. 그보다 먼저 죽어  
 갔는데 아시아나로 남편을 출생 보내고 남편 건강 마음이 복받기 때문  
 피 않는다. 출생 전날 저녁에 그이의 출생7분쯤 다 준비  
 아무래도 새 비행기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믿음이 커요. 그리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면  
 세상엔 온 것 같은 신성한 느낌이 들어요... 승무원들 웃는 모습도 다른 것 같아요. 꾸미  
 5는 깨끗하다. 강연 비디오프로젝트 수트에 어울리는 분위기는  
 없애서 편안한 웃음... 이걸로 아시아나 사람들이든 외국인이든  
 아시아나... 그이가 편한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한 웃음... 새 비행기는 편안도 새가  
 그리고 그이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비행기... 하지만 출생7분쯤 아무리 몸무게가  
 느끼는 것까지도 내가 느낄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해  
 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시아나로 다녀오면 안전하니까요.



## 한인회보 발간을 즈음하여

### '새천년 미주류사회에 영향력있는 한인사회 이루어지길'

많은 포부와 희망을 갖고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인회보」를 발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워싱턴주 동포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아 미국속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새롭고 더 성숙한 이민사회를 탄탄히 이루어 나가길 아울러 바랍니다.

본인은 '99년도 제 33대 회장직을 맡은 지난 1년간 워싱턴주 동포사회와 한인회를 위해 나름대로 이사장 및 임원진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보람과 더불어 안타까운 이민사회의 양면성을 지켜보면서 한인사회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많은 해외동포들 또한 한인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인회는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교민들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되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워싱턴주 동포여러분

한인회는 결코 임원진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동포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채찍질로 이루어지는 터전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21세기 미주류사회에서 한국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 높은 기반다지기에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믿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한인사회의 화합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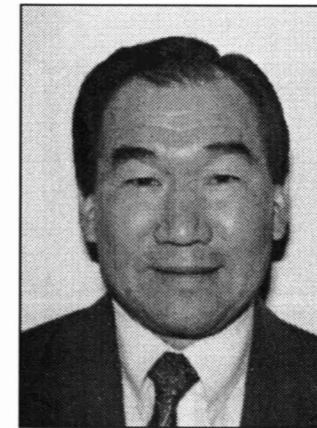
그간 부족한 본인을 회장직으로 이끌어 준 전임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봉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한해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한인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애틀 한인회장 강석동



## 인사말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우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30여년전에 창립되어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 발전하였던 것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많은 선배분들과 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인회 임원 이사진들이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진정한 모든 한인 단체의 구심점이 되고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한인회가 될 것입니다.

교민 여러분 개인중심의 생활방식에만 몰두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서로 형제애로 굳게 뭉쳐서 이민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모두가 열심히 활동하여 이 미국 땅에 한국 얼을 심고 우리 겨레의 아름다운 문화 풍토를 이 땅에 이루고 가꾸어 나갑시다.

끝으로 교민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일에 항상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999년 12월 4일

시애틀 한인회 이사장 유철웅

GARY LOCKE  
Gover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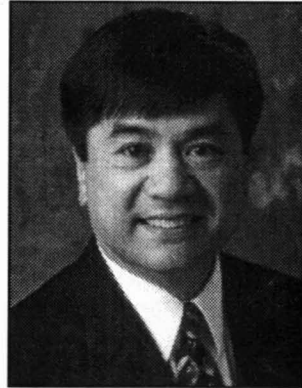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P.O. Box 40002 • Olympia, Washington 98504-0002 • (360) 753-6780 • TTY/TDD (360) 753-6466

## Message from the Governor

December 1999



As governor, I am pleased to congratulate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on the distribution of its first annual association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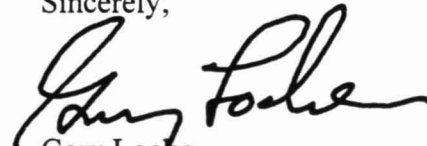
I commend you for your efforts to inform your community of current events and record important historical data in your bulletin. In addition, by providing a directory of services and a networking tool, you are actively encourag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American businesses.

Our state is a unique blend of many cultures, languages, and traditions. As we prepare to meet the promise and challenge of the 21<sup>st</sup> century, we must all work together for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individuals from different backgrounds.

Each of us owes a debt of gratitude to organizations like the Korean Association that promote an increased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depth and richness of our diversity. By working to foster a greater sense of fellowship among Korean Americans, you are helping to create a brighter future for all the people of our state in the new millennium.

Best wishes in your endeavors!

Sincerely,

  
Gary Locke  
Gover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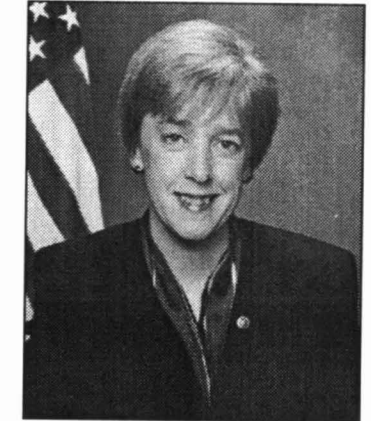
PATTY MURRAY  
WASHINGTON

##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4704

COMMITTEES:  
APPROPRIATIONS  
BUDGET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VETERANS' AFFAIRS

October 28,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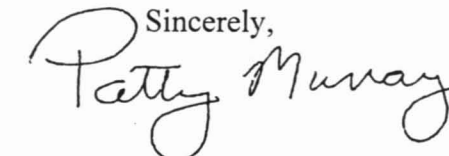
Suk Dong Kang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1200 S. Angelo St.  
Seattle, Washington 98108

Dear Friends:

Congratulations on the new annual Korean Association Bulletin. Through hard work and perseverance, it is finally finished and ready to distribute. What a wonderful way to bring information and news to the Korean community.

As you know, the Northwest has boomed in the last several years with Koreans. This increase has not only helped boost Washington state economically, but also added greater cultural diversity. I am excited to see the growth and initiative of th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bulletin.

Sincerely,  
  
Patty Murray  
United States Senator

2930 WETMORE AVENUE  
SUITE 903  
EVERETT, WA 98201-4107  
(425) 259-6515

2988 JACKSON FEDERAL BUILDING  
915 2ND AVENUE  
SEATTLE, WA 98174-1003  
(206) 553-5545

601 WEST MAIN  
SUITE 1213  
SPOKANE, WA 99201-0613  
(509) 624-9515

140 FEDERAL BUILDING  
500 W. 12TH STREET  
VANCOUVER, WA 98660-2871  
(360) 696-7797

402 E. YAKIMA AVENUE  
SUITE 390  
YAKIMA, WA 98901-2760  
(509) 453-7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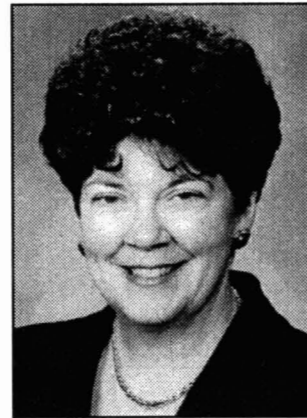


## Washington State Senate

**Olympia Office:**  
202 Irv Newhouse Building  
PO Box 40482  
Olympia, WA 98504-0482  
(360) 786-7660

**Senator Pam Roach**  
31st Legislative District

**District Address:**  
PO Box 650  
Auburn, WA 98071  
(253) 735-4210  
e-mail: roach\_pa@leg.wa.gov



October 22, 1999

To the Korean Community of Washington State:

It is a great pleasure to congratulate you on your many individual and group accomplishments here in Washington State. Elected officials and government entities at every level ha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Korean Community's ability to persevere in the face of great challenges.

I appreciate and thank each of you for your valuable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ies in which you live and work.

Also, I am happy to tell you that I just returned from a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which I hosted with Senator Paull Shin. It was a fascinating and informative trip that will stay with me forever.

Best wishes to each of you, and to the Korean community as a whole.

Sincerely,

Pam Roach  
State Senator



## Washington State Sen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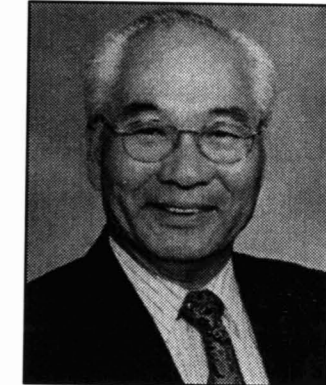
**Olympia Office:**  
412 Legislative Building  
PO Box 40482  
Olympia, WA 98504-0482  
Phone: (360) 786-7640

**Paull H. Shin Ph.D.**  
**Senator**  
21st Legislative District

**District Office:**  
19707 64th Avenue West, #109  
Lynnwood, WA 98036  
Phone: (425) 673-1393  
e-mail: shin\_pa@leg.wa.gov

September 29, 1999

Suk Dong Kang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1200 South Angelo Street  
Seattle, WA 98108



Dear Mr. Kang and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It is my distinct pleasure to recognize the Korean Association for its dedication and service to the Korean community of Washington State. As many of you are aware, I served as a past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an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watch the organization grow to meet the needs of Koreans throughout Washington. It is with great pride and honor that I recognize the efforts made by the association to represent the needs and ideas for Koreans.

I am proud of your untiring dedication to this cause and am pleased to be a part of these efforts.

Sincerely,

Paull Shin  
Senator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ATTLE



## 축사

중단되었던 시애틀 한인회보가 강석동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시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강인하고 근면한 민족성은 짧은 이민생활에서 빠른 경제적 자립을 달성케 하였으며, 문화민족으로서 이 지역에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깊이 심어주면서 미주류 사회속에서 자랑스러운 소수민족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가고 있음은 우리모두의 자랑이며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한인회는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고양시키는 힘있는 대변기구로 성장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포 여러분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능동적인 참여속에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애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애틀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포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1999년 10월

주시애틀총영사 손 훈



City of Seattle

Paul Schell, Mayor  
Office of the Mayor

December 4, 1999

Gree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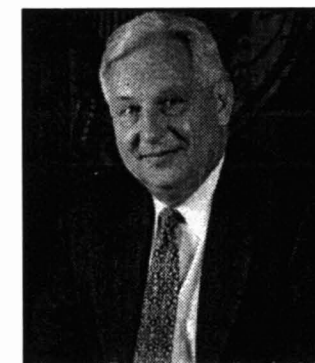
As Mayor of the City of Seattle,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warmly welcome the members and guest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ate of Washington to your re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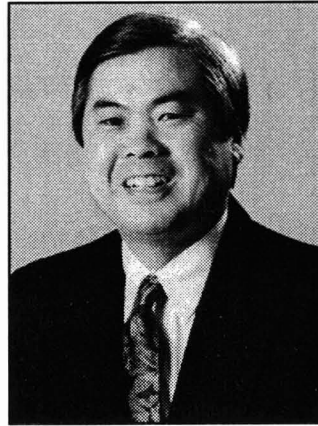
The Korean Association is a major contributor to the cultural life of our communit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s contributions to Seattle are impressive in so many areas including the arts, business, technology, and our skilled workforce. These contrib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what Seattle is today - world-renowned for its great diversity, neighborhoods, recreation, intellectual vitality, and talent.

I wish you continued success in your endeavors. Congratulations, and have a successful event!

Very truly yours,

Paul Schell





서북미 동포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보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한해동안 중책을 맡아 열심히 활동해오신 강석동 회장님, 유철웅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이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포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는 서북미 동포사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동포들의 이민생활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시민권강좌, 무료컴퓨터 강좌를 실시하였고 Sea-Fair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우리민족 고유전통을 사랑하였고 경노 잔치를 통해서 노인분들을 위로하는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가 얼마남지 않은 새로운 2000년을 향해서 새로운 각오로 동포들을 대변할수있는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포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임원 여러분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동포여러분 각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영만*  
박영만  
부시장



인사말

참으로 오랜만에 한인회보가 발간되니 정말 기쁩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이 '한인회보'에 글을 올리게 되니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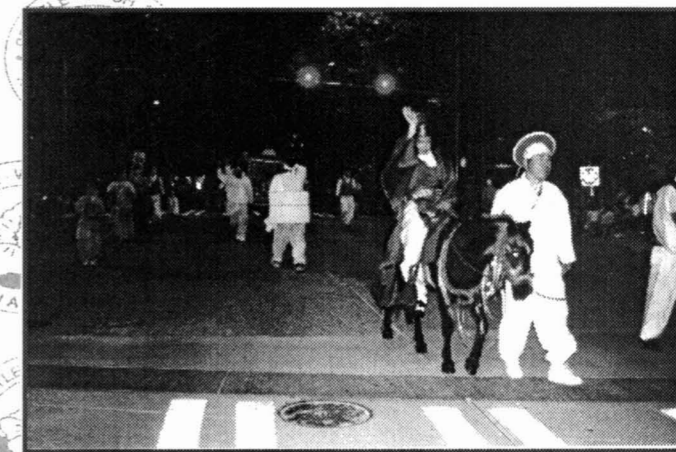
1981년 제14대 한인회장으로 봉사한지가 엇그제 같은데...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하듯이 지금이 어름살이 강산이 두 번쯤 변해가는 셈이 됩니다. 그 당시 한인회보를 거의 매달 발간할 적에 우리 임직원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원고 쓰고, 투고 모으고, 편집하여 당시 유일한 우리 교민 인쇄소에서 약 6,7백부씩 만들어서 벌크 메일로 교포가정에다 우송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김교선 장로님 내외분의 고마움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산이 두 번쯤 변해 가는 세월동안에 우리 교민사회의 발전은 실로 괄목할 만큼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교민수도 엄청나게 늘었거니와 이곳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분야도 다양해 졌습니다. 또한 성숙하고 안정된 생활기반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나라 정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우리 교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모두가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조국의 국위선양과 우리 교포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의 후세들의 앞길에 밝은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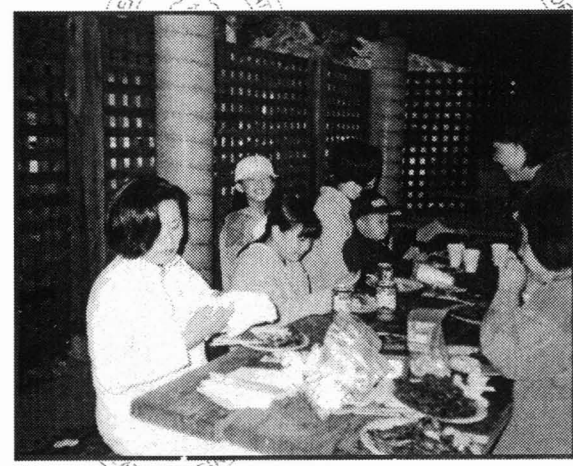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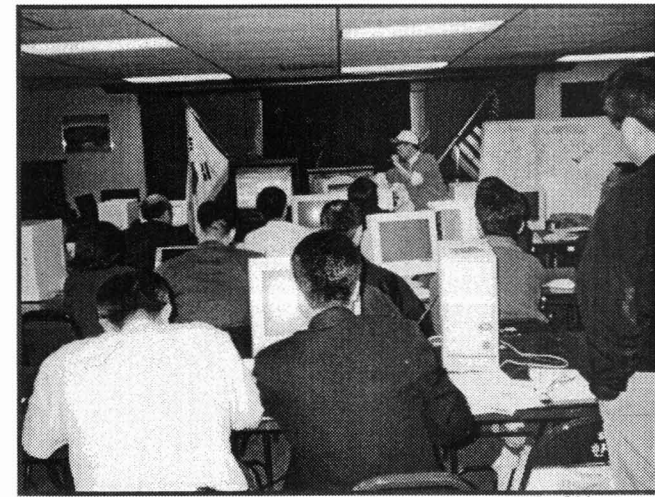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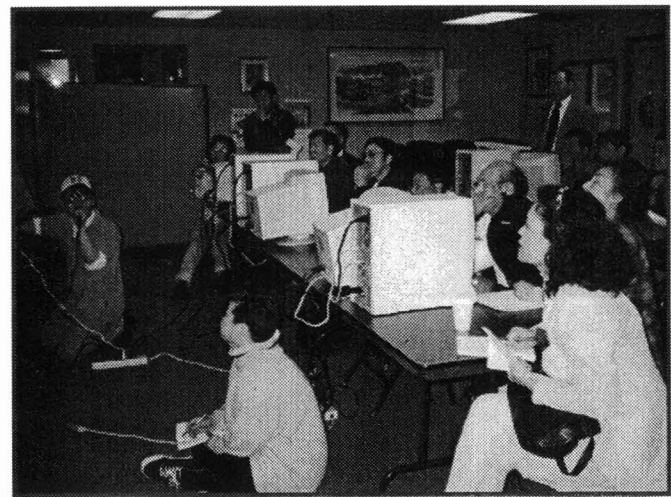
우리 교민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는 남 모르게 헌신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역경도 견디어가면서 크고 작은 숨은 일들을 묵묵히 자진해서 봉사해온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하여 격려해주시고 협력해주셨던 많은 교민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의 흔적이 우리 교민사회의 밑바닥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다 함께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람속에서 발전해 가는 이때에 어언간 며칠후면 새로운 2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가는 2천년을 보내는 징검다리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못 다한 아쉬운 일들과 좀더 잘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앞으로 새시대에 알맞은 슬기로운 일들을 잘 찾아서 새로운 2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알차고 영광스러운 우리 교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교민 모두의 관심과 전 세계 인류의 주목 속에서 오는 2002년에는 우리 나라와 일본이 공동주최하는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큰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전 세계인류의 찬사를 받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힘을 모아서 더 한층 우리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민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선한 봉사자의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수고하시는 한인회 임직원 여러분과 이곳 여러 단체를 이끌면서 교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씨애틀 교민 여러분의 성공과 행운을 빌면서 우리 다 함께 희망의 새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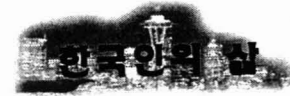
1999년 12월

시애틀 한인회 회장 강 동 언









전제되지 않고 태극기를 설명한다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태극 사상과 철학만을 나열하게 되어 그 이해가 매우 어렵다. 태극 사상 또는 태극도 설명을 태극기 설명으로 가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최초 태극기의 형태와 제질은 사각형의 옥색 바탕이었다. 이것 역시 앞의 기사에서 읽었듯이 고종황제가 직접 지시하였다. 태극 도형은 원을 수직으로 나누어 머리 부분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회전을 시도한 부분을 홍색 칠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을 시도한 부분을 청색 칠하여 두 극이 좌우 대칭되도록 하였다. 이 모습은 마치 팔짱을 깊게 끼고 돌아가는 형상과도 같아 보인다. 두 극의 머리는 굽고 반면에 몸통은 짧으나 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역동적이어서 마치 힘찬 회오리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주역 등 어떠한 태극 도형과도 차별되도록 도안되었음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 4괘의 설명

최초 태극기의 4괘는 현재처럼 건(乾), 곤(坤), 감(坎), 이(離)가 아니고 그림에서 보았듯이 손(巽), 간(艮), 진(震), 이(離)였다. 그러나 괘의 의미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고종황제는 최초의 태극기를 그릴 때 4괘의 의미를 동서남북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국기의 네 귀퉁이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괘를 그린 것을 조선의 국기로 정한다」라는 부분이다. 역괘중에 태극기의 네 귀퉁이에 그려진 4괘의 설명을 평범하게 동서남북이라고 강조한 것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4괘가 동서남북을 의미하였다면 태극원은 주역의 음양으로 해석되는 해와 달이 아니라 우주 천체를 으뜸으로 상징하는 하늘과 땅 또는 태양과 지구로 설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최초의 태극기 그림 확인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진 것은 데니(Denny)씨 소장 태극기로서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이른바 데



#### 데니씨 소장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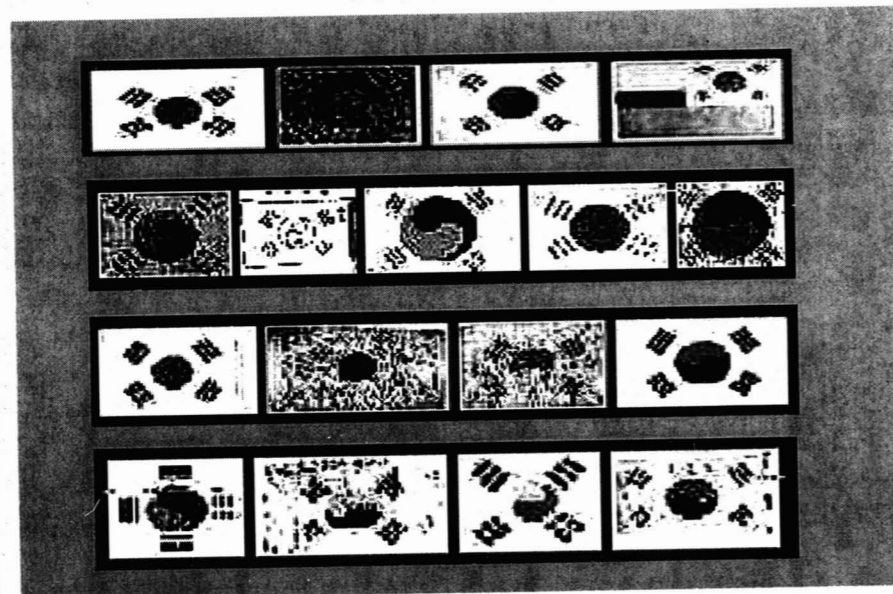
미국인으로 조선말기 1886년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씨(Deny, Owen N)가 재미시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태극기. 데니씨는 당시 조선왕조를 간섭하던 청나라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미국인 외교 고문이었다. 이런 일로 데니씨는 1888년 청나라에 의해 외교 고문직을 물러났고 그후 "청국과 조선"이라는 책을 펴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하여 저지른 갖가지 횡포를 공개했다. 음방과 양방의 몸체는 가늘고 길다. 통상약장태극문양과 비슷하나 음방과 양방의 위치가 다르다.

니 소장 태극기로서 18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사신보에서 태극기 그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 최초의 태극기를 데니씨 소장 태극기가 아니면 독립문에 새겨진 태극기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듯 했다. 그러나 1882년 10월 2일자 시사신보가 발견되므로 써 정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해 최초의 태극기 그림을 확인하게 되었음은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일이자 태극기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로써 매우 귀중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사신보의 기사와 국내의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최초의 태극기가 완성된 날은 1882년 9월 25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수신사 일행이 고베에 도착한 9월 25일 바로 그날 숙소인 니시무라야(西村屋) 옥상에서 태극기가 처음으로 휘날렸다는 기록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일 뒤에 수신사 일행이 동경을 방문하자 시사신보는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 태극기 관련 기사와 함께 태극기의 그림을 소개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태극기 모습이 세상 밖으로 나타난 9월 25일에서부터 이 사실이 외국의 신문에 의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10월 2일까지는 불과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영효가 메이지마루호 선상에서 그렸다는 당시의 태극기 실물 3개에 대한 존재의 기대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한 시사신보에 실린 태극기 그림이 우리 나라 최초의 태극기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취재·확인하여 국민들에게 감격적으로 보도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역사속의 태극기들



**외환은행은—**  
**내일의 알찬 결실을 위해 오늘도**  
**교포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 주요취급업무

- 미국내 및 한국과의 외환송금/추심업무
- 수출입 및 관련 금융업무
- 현지교민 및 본국상사앞 Business Loan 등 여신업무
- Commercial Mortgage Lo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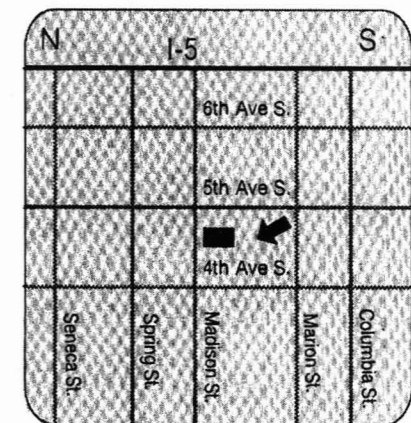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 ■ 주소 및 전화번호

**Tel (206)622-7821**  
**Fax (206)343-5874**  
900 4th Ave., Suite 1600 Seattle, WA 98164  
(Union Bank of CA Center Bldg 16층)

#### ■ Seattle 지점 위치도



※5th & 4th Ave, Marion & Madison St. 사이에 위치.

한복은 평면적인 옷감을 직선적으로 재단하고 이를 꿰매어 평면적인 옷을 만들며 이것을 다시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남은부분을 주름을 잡거나 접어서 끈으로 고정시키는 형태이다. 바지의 경우에는 띠를 이외에 활동에 필한 여유분을 주거나 위아래 시폭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큰 것과 작은것으로 나누어 주름 좌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구성방법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조건과 민족적인 미적감각을 잘살려준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한복은 평면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입어야 비로소 입체감이 형성되어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미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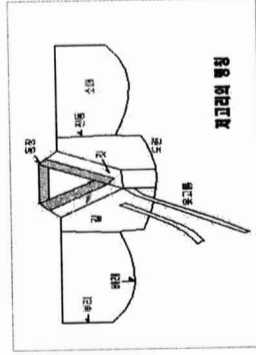
한복의 아름다움은 외관으로 보이는 선의 흐름과 옷감이 지닌 색채의 조화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추녀의 곡선과 같이 하늘을 향한 듯한 저고리의 배례선과 도련의 곡선동정의 예리한 직선과 조화를 이루며 여기에 감쪽하고도 앙증스러우리 만큼 둥글면서도 뾰족한 작은 쇠코의 선은 저고리를 한층 돋보이게 해준다.

한복에 나타나는 이같은 선의 흐름과 조화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여기에 옷을 입고 움직일 때에 생기는 동적인 선의 아름다움까지 가미하면 우수한 선의 조화는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있다고 하겠다. 옷감의 색채 면에서 볼때에는 한민족을 일컬어 '백의민족'이라고 했듯이 백색은 좋은 인연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옛부터 숭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흰옷을 즐겨 입었다.

**한복의 변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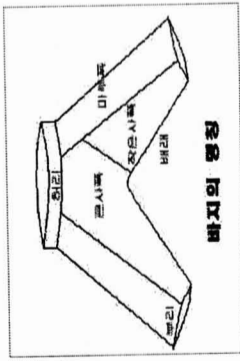
우리의 한복은 이웃나라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이 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 **저고리**  
옛날 저고리는 소매통이 좁고 깃을 왼쪽으로 여며 띠를 매고 깃,도련,소매끝에는 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매통이 넓어지고 깃을 오른쪽으로 여미게 되었다. 그리고 고리의 백저포에 이르러서는 선이 없어지고 조선기대에 와서는 소매가 넓은 직령,도포,창의이 세로 생겨나고 말엽에는 주위가 등장하였다. 한복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것은 왜관과 호판등을 겪으며 민족의식이 뒤늦아지면서 부터이다. 남자의 도포,창의, 주의를 우리의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었지만 여자의 원삼,활옷,다의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하지만 결속이 단조로워서 생긴 여러가지의 속옷들을 우리의 것이라 말할수 있겠다.



▶ **바지**

옛날 바지는 가랑이가 좁은 것 과 넓은 것 두가지가 있으며 대님으로 발목을 매게 되어있었다. 남자가 다 같이 입었었지만 여자는 차차 치마를 입어 오늘날에 이르렀고 바지는 어트맨가 남성만의 옷이 되버려다. 가랑이가 짧은 잠방이도 오래전부터 입었다.



▶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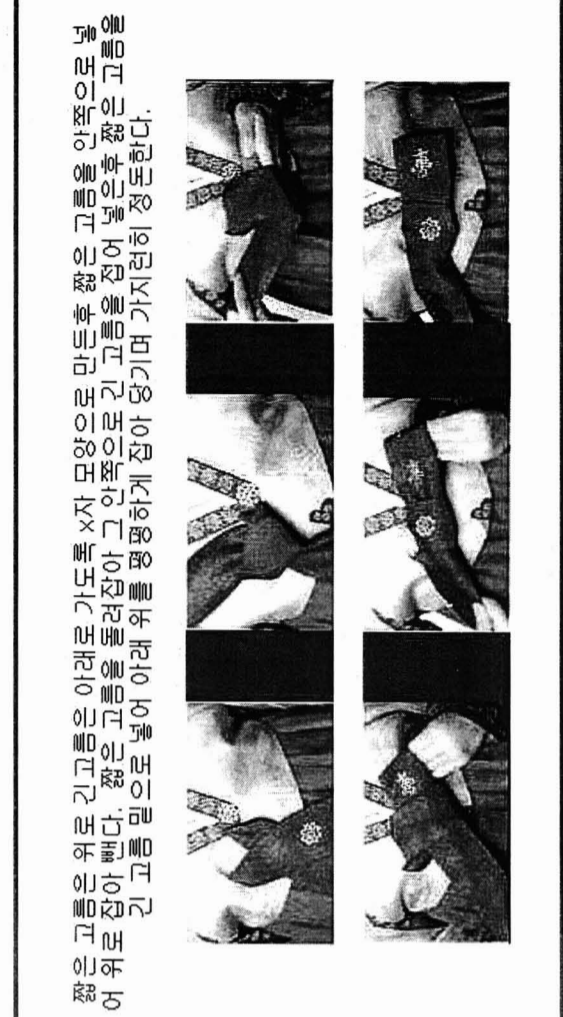
치마는 원래 더운 지방의 것으로 어느 때부터 인가 여자들이 입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분히 의례적이어서 보통때는 바지만 입고 예의를 갖추어야 할때만 바지위에 치마를 입었었다. 그모습은 허리에서 부터 치마끝단에 이르기까지 잔주름이 있고 밑에는 선이 물러져 있었다.

▶ **두루마기**

자락을 왼손으로 잡고, 깃을 앞쪽으로 잡는다. 치마끈은 뒷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약 7~10cm정도 여미지도 록 하여 앞으로 끈을 묶는데, 이때 치마 오른쪽 끈은 치마 말기 안쪽으로 빼면 흘러내리지 않고 잘 고정된다. 저고리 속에는 속적삼이나 속저고리를 입는데 대개 엷은색의 얇은 옷감으로 되어 있다. 특히 얇은 감일수록 속적삼이나 속저고리를 입는 데 대개 엷은 색의 얇은 옷감으로 되어 있다. 특히 얇은 감일수록 속적삼이나 속저고리를 꼭 갖춰입어 속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복을 제대로 입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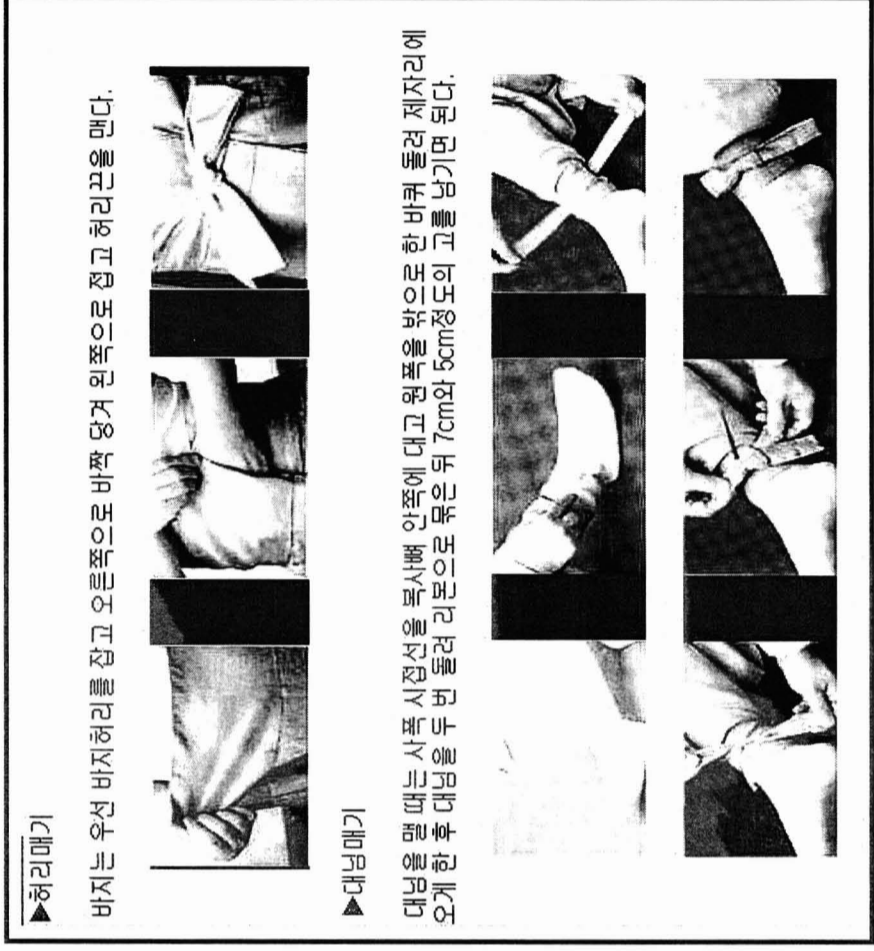
▶ **속옷을 제대로 갖춰입기**  
요즘엔 예전같이 치마속에 여러 가지 속옷을 입지 않고 대개 속바지와 속치마만 입는다. 속치마는 결치마보다 2~3cm 짧게 입는다. 요즘은 치마를 펼쳐보이게 하기 위해 페티코트처럼 제작된 속치마를 체형에 따라 1층의 프릴을 달거나 2층의 프릴을 달아 입는다. 바신은 수축(바느질한 솔기)의 방향이 오른쪽 양쪽을 잘 잡아 당겨 신으며, 신발은 가죽신이나 고무신을 신도록 한다. 치마는 결



짧은 고름은 위로 긴고름은 아래로 가도록 x자 모양으로 만든후 짧은 고름을 안쪽으로 늘려 위로 잡아 빼다. 짧은 고름을 돌려잡아 그 안쪽으로 긴 고름을 잡아 넣은후 짧은 고름을 긴 고름 밑으로 넣어 아래 위를 평평하게 잡아 당기며 가지런히 정돈한다.

▶ **저고리는 익힌 속이 입어야 재밌**  
저고리는 깃고대와 어깨 솔기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 앞으로 숙여 입어야 재밌이 나며 이때 속적삼과 치마허리가 저고리의 도련 밑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깃은 저고리의 길이에 비례하도록 짧게 바짝 달아서 입었을 때 목둘레를 단아하게 감싸게 하는데, 이 목선이 한복의 대표적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단정한 몸 가짐의 상징적인 선을 보여주는 옷차림인 셈이다. 동정의 너비는 대개 그 시대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저고리는 입었을 때 몸에 착 붙고 고름의 고가 적당한 길이로 매어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며, 고름의 고를 리본처럼 묶거나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 전통 방법으로 매는 것이 품위있고 아름답다.

▶ **대님매기**  
대님을 맨 때는 사복 시접선을 복사해 안쪽에 대고 원폭을 밖으로 한 바퀴 돌려 제지리에 오게 한 후 대님을 두 번 돌려 리본으로 묶은 뒤 7cm와 5cm정도의 고를 남기면 된다.



▶ **허리매기**

바지는 우선 바지허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바짝 당겨 왼쪽으로 집고 허리끈을 맨다.

▶ **대님매기**

대님을 맨 때는 사복 시접선을 복사해 안쪽에 대고 원폭을 밖으로 한 바퀴 돌려 제지리에 오게 한 후 대님을 두 번 돌려 리본으로 묶은 뒤 7cm와 5cm정도의 고를 남기면 된다.

▶ **메이 스타일은 깔끔하게**

한복에 어울리는 머리는 목선이 드러나는 단정히 올린형이 좋다. 일반적으로 귀 뒷머리부터 뒤로 곱게 빗어 올려 올려 올린 머리를 만들어 목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 짧은 헤어스타일도 볼륨을 줄이고 옆을 단정하게 붙이면 올린머리 못지 않게 어울린다.



▶메이킹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한복에 어울리는 메이킹업은 피부색을 약간 밝게 표현하고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목선이 드러나게 되므로 얼굴과 피부색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려한 수기 놓인 한복엔 질제된 액세서리들

한복에는 단순하고 우아한 품위를 나타내는 액세서리가 어울린다. 화려하게 수를 놓은 치마 허리끈을 늘어뜨리거나 노리개를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것도 한복의미를 반감시키게 한다. 귀고리도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 달라붙는 귀고리 형태가 어울린다.

▶고름매기

짧은 고름은 위로 긴고름은 아래로 가도록 x자 모양으로 만든 후 짧은 고름을 안쪽으로 넣어 위로 잡아낸다. 짧은 고름을 돌려잡아 그 안쪽으로 긴 고름을 접어 넣은 후 짧은 고름을 긴 고름 밑으로 넣어 아래위를 평평하게 잡아당기며 가지런히 정돈한다.

남자한복

한복은 격식대로 잘 차려 입었다 해도 품위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아한 맵시를 표현할 수 없다. 좋은 옷감, 아름다운 색상, 단아한 옷차림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복 차림에 어울리는 조신한

몸가짐이다. 남자한복은 바지저고리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는데 외출시에는 반드

세계 한국 고유의 옷인  
한복은 형태나  
구성, 아름다움, 재질, 위생  
적인 면에서  
그 뛰어난 특색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섯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어....

시 두루마기를 걸쳐야 한다. 남자한복은 허리매는 법과 대님치는 법만 익히면 어렵지 않게 입을 수 있다.

▶허리매기

바지는 우선 바지허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바짝 당겨 왼쪽으로 접고 허리끈을 맨다.

▶대님매기

대님을 땀 때는 사복 시접선을 복사뼈 안쪽에 대고 왼쪽을 밖으로 한 바퀴 돌려 제자리에 오게 한 후 대님을 두 번 돌려 리본으로 묶은 뒤 7cm와 5cm 정도의 고를 남기면 된다

**유 호 승 머리사 랑**

PROFESSIONAL HAIR ART

**시선이 집중된다!**

유호승 머리사랑  
우리의 맛을 찾아  
끝없이 노력하는  
유호승 머리사랑에서  
여러분의 머리사랑이  
시작됩니다.

**(253)839-8282**

31260 Pacific Hwy So. #4  
Federal Way, WA 98003  
(대한 프라자내)

청렴결백하고 지조를 중시하는 사람, 어떤 처지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고고한 정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학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비라고 한다. 그런 선비의 방은 비록 문갑과 서안, 책장, 글씨로 된 병풍이 고작이지만 그 분위기에서는 선비의 높은 지조와 정신이 엿보인다.

한국의 학자들 가운데 한국 전통문화의 본질을 선비정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선비정신은 의리를 지키고 절개를 중히 여기는 도덕적 인간의 정신을 말한다. 이는 조선조의 지도이념인 유교에 입각한 지배계층의 생활신조로서 말하자면 조선시대를 이끌어온 이상적인 문화 유형의 하나다. 인격이 높은 선비일수록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산림에 묻혀 도학(道學)과 덕행을 쌓는 것으로 본분을 삼았다.

<선비는 민족원기의 기탁(寄託)이며, 국가명맥의 최후 보루이다>, <선비의 치욕은 국가의 치욕이다>라고 할 만큼 당시 선비의 위상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드높은 경지를 이루며, 학문의 연원이 되어 이 시대의 사상을 풍부하게 했다.

도학 군자로 일컬어지는 이퇴계, 이율곡을 비롯하여, 산림유(山林儒)의 표상이 돼온 남명 조식 등의 지고한 선비 정신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간관으로 한국 사상과 철학의 중요한 맥을 형성하였다.

사랑방

사랑방은 남성들의 주된 생활공간으로 선비들의 고고함과 기품이 단연 돋보이는 곳이다. 남성들의 침실로, 서재로, 응접실로 사용되었던 사랑방은 밝고 조용하며 넓지 않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방 주인의 취향에 따라 방을 치장하였다.

청빈 검소함을 생활이념으로 하는 선비의 끈고 맑은 정신을 바탕으로 방을 꾸렸기 때문에 벽에 그림을 걸거나 병풍을 치는 것이나 장식이 많은 문방기구를 놓은 것은 볼 수 없으며 색의 선택도 회고 검은 것이 주로 선택된다. 다만 아랫목에 보료를 깔고 그 앞에 서안(書案)을 놓았으며 좁은 방을 넓게 쓰기 위해 사방탁자나 문갑/책장 등 가구는 벽면에 붙여 놓고 붓걸이와 고비는 벽에 걸었다. 때로는 주인의 취향에 따라 수석이 나 난과 같은 소품이나 거문고, 통소 등의 취미 오락기구를 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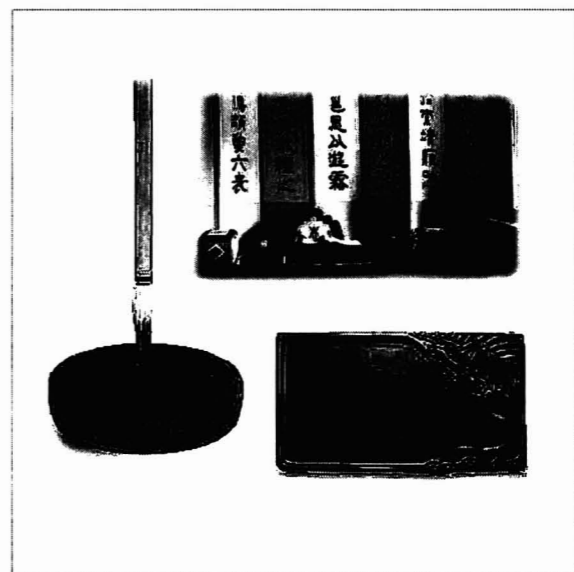
이렇게 선비와 사대부들은 반드시 문방(文房)으로서의 사랑방을 갖추고 혼자

문방으로 사용되던 사랑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도구는 종이(紙), 붓(筆), 먹(墨), 벼루(硯)의 필기구이다. 이 네가지는 문방사우(文房四友)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서로 떨어져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선비들은 금구슬이 앞에 있을지라도 흠처럼 여기는 청렴함을 자랑으로 삼지만 문방사우를 탐내는 욕심만큼은 '선비의 벽(癖,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병증)'으로 용서하였던 것이다. 이들 문방사우는 서로의 벗일 뿐 아니라 선비에게도 벗이 되어 학문을 연마하는 동안 내내 옆에서 친구가 되어 주고 공부를 통해 귀결(歸結)되는 그들의 글정신을 나타내어 알리게도 하였다.

성균관

성균관은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의 뒤를 잇는 조선시대의 유학교육기관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과 같은 유학교육기관이다. 성균관에 입학에는 자격제한이 있어서 대체로 양반 사대부 자제들에 국한되어 있었고,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은 기숙사에 머물면서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은 소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자학정신을 배우며 동시에 성



현을 섬김으로써 이론과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미덕으로 하였다. 성현을 모시는 공간은 강당인 명륜당(明倫堂)과 숙소인 동/서재(東/西齋) 등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기단이나 건축양식 등이 이들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유교의 교육과 성현을 모시는 것은 성균관뿐 아니라 지방의 향교에도 이어져 이러한 교육체계는 조선의 선비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추구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문방사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 독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시기가 뚜렷한 역사적 사건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글자이다. 한글의 모음은 철학적 통찰에 의해, 자음은 과학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주론 이루고 있다고 믿어지는 세 가지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이 어우러진 것이 모음이고, 입모양을 관찰한 음성학적 연구의 결과가 자음이다. 한글의 실제 창제자가 세종인지, 아니면 세종의 후원을 받은 집현전 학사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군왕이 백성이 쓸 수 있는 글을 창제하기로 마음먹게 된 동기 역시 선구적이다. 한글창제의 동기는 그 유명한 훈민정음 서문에 간결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많은 중국글(한자)과 서로 맞지 않다"는 자주 정신,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었다."는 민주적인 의식은 당시로서는 무척 진보적인 것이다.

### 한글이란?

우리 겨레가 사용하는 글자의 이름을 말하며, 겨레의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이다. 세종(조선 제 4대 임금)이 1443년(세종 25년)에 창제하여 1446년(세종 28년)에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한 글이다.

훈민정음은 발음기관과 삼재(하늘, 땅, 사람)를 본떠서 만든 독창적인 글자이다. 처음에는 28 글자였으나 현재는 24 글자만 쓴다. 한글은 낱소리 글자이면서 음절글자의 특징도 아울러 지닌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적인 글자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이 지구에는 여러 종류의 글자가 쓰이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글자 가운데 훈민정음과 같이 만든 목적과 만든 사람이 분명한 글자는 흔치 않다.

### 제작 원리가 소상이 밝혀진 글자

세종임금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와 함께 한글을 만든 목적과 동기, 글자의 수효(數效), 그 체계와 원리 그리고 용법등을 자세하게 밝혀 놓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있기에 한글은 그 참모습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 문자학적 위대성이 입증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글은 그 뛰어난 문자임을 뒷받침해 주는 "



보증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세계 문자사상에서 볼 수 없는 일로서 한글과 그 주인인 우리의 큰 자랑거리이며 따라서 세계 인류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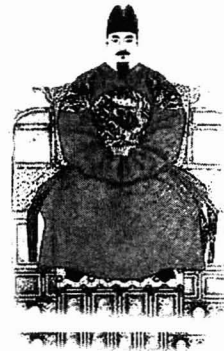
### 어머자와 생일을 가진 유일한 글자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날짜가 정확히 밝혀진 글자라는 점에서도 세계 문자 사상에 유례가 없다. 한글은 지금부터 550년 전에 세종 임금이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 창제하여 반포한 기록이 뚜렷이 남아 있다.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글자의 날을 기념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그런 날을 기념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해마다 10월 9일에 한글날을 지내고 있는 것은 우리만이 가지는 특전이며 세계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 세종대왕(1397~1450; 재위 1418~1450)

조선의 제4대 왕. 휘는 도, 자는 원정. 태종의 셋째 아들. 비는 소헌 왕후 심씨. 1408년에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8년에 형 양녕 대군이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되자 세자에 책봉된 후 태종의 양위를 받아 2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그는 현명하고 학문을 즐겼으며, 경제, 외교, 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크게 치적을 올려 조선 왕조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1420년 집현전을 신설하고, 1446년에는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한 후, 그 실행 및 보급에 힘썼다. 1449년에는 스스로 <월인천강지곡>을 짓고, 권제, 정인지, 안지 등에게 명하여 <용비어천가>를 짓게 하였다. 또 정음청을 설치하여 유교 서적과 음운서 등의 국문출간을 담당하게 하고, 학문을 장려하여 <호행록><삼강행실도><오례의><고려사><역대병요><의방유취>등 각종 서적을 편찬, 간행케 하였으며, 활자와 인쇄술을 개량하였다. 전제 상전소를 두어 토지,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한편, 측우기를 천히 고안하여 세계최초로 우량을 측정하였다. 또, 장영실, 이천 등을 시켜 해시계, 물시계, 혼천의 등 각종 천문, 과학 기구를 제작케 하였으며, 박연으로 하여금 음악을 정리하여 아악의 기초를 닦고, 또 악보를 만들게 하였다. 한편 6진을 개척하고 4군을 설치하여 거의 현재의 영토를 확보하였으며, 1419년에 이종무에게 명하여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정벌하게 하였으나, 후에 쓰시마 도주가 사죄하고 통상을 간청하자 3포(제포, 부산포, 영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하여 주었다.



미국 시카고(Chicago) 대학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J. McCawley 교수는 한글의 이러한 면을 높이샤 지난 20여년 동안이나 동료 언어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고 갖가지 한국 음식을 차려놓고 한글날을 손수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한글이야말로 세계의 지성인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세계 문화의 위대한 꽃임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우리와 아무 연고도 없는 이가 이러한 기념행사를 지내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글의 위대성을 새삼 실감한다.

### 참으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발명 문자

한글을 만든 원리는 21개 언어학 또는 문자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상키 어려울 정도이다. 모음은 동양 철학 음양설의 삼재(三才) 곧 하늘을 상징하는 "아래 아 .", 땅을 상징하는 "ㅡ",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ㅣ" 등 세 가지 기본글자를 바탕으로 삼아 만들었다. 나머지 모음 여덟 글자(ㅑ, ㅓ, ㅕ, ㅗ, ㅛ, ㅜ, ㅠ)는 그 기본 글자를 다시 결합시켜 만든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본 글자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조합하여 다른 글자들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현대 과학 또는 수학의 생성 원리와 일치되는 점이다.

자음 또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고 있다. 자음의 경우에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따 5개의 기본 글자(ㄱ, ㅋ, ㆁ, ㄷ, ㅌ)를 먼저 만든다. 다시 이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변형을 하여 다른 자음 글자들을 만든다. 과학이나 수학은 소수의 기본 요소를 근본으로 삼고 거기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다른 여러 현상을 생성 또는 설명하는 것을 원리로 삼고 있다.

한글도 이와같이 위에 말한 모음과 자음의 기본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여러 글자를 만들고 또 그런 글자들을 합

해서 "가, 나, 달, 말" 등 술한 음절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어느 나라의 글자에서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도 500여년 전에 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현대 과학자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높이 사는 것이다.

저명한 문자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영국의 G. Sampson 교수(Sussex 대학 인지컴퓨터 학부)는 한글의 전무후무한 과학

기본자음 (Basic Consonants)	한글	이모음	이름	Letters Name	Sound Value
기본자음 (Basic Consonants)	ㄱ	ㄴ	기해	kiyŋk	g, k
	ㅋ	ㄷ	나손	niŋn	n
	ㆁ	ㄹ	다물	tiŋl	d, t
	ㄷ	ㅁ	미음	miŋm	m
	ㄱ	ㅂ	비음	piŋb	b, p
	ㅋ	ㅅ	사음	siŋs	s, sh
	ㆁ	ㅇ	어음	iŋg	ŋ, -ng
	ㄷ	ㅈ	지음	chiŋt	ch, j
	ㄱ	ㅊ	치음	chiŋt	ch'
	ㅋ	ㅌ	키음	kiŋk	k'
	ㆁ	ㅍ	피음	piŋp	p'
	ㄷ	ㅑ	피음	piŋp	p
	ㄱ	ㅓ	피음	piŋp	p
	ㅋ	ㅕ	피음	piŋp	p
ㆁ	ㅗ	피음	piŋp	p	
ㄷ	ㅛ	피음	piŋp	p	
ㄱ	ㅜ	피음	piŋp	p	
ㅋ	ㅠ	피음	piŋp	p	
ㆁ	ㅡ	피음	piŋp	p	
ㄷ	ㅣ	피음	piŋp	p	
ㄱ	ㅑ	쌍기해	ssang-kiyŋk	kk	
ㅋ	ㅓ	쌍비음	ssang-niŋn	tt	
ㆁ	ㅕ	쌍미음	ssang-piŋl	pp	
ㄷ	ㅗ	쌍사음	ssang-siŋs	ss	
ㄱ	ㅛ	쌍지음	ssang-chiŋt	ll	

학성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발성기관의 소리내는 모습을 따라 체계적으로 창제된 과학적인 문자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어의 T와 N이라는 글자는 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발성 기관의 모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N에 해당하는 "ㄴ"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따 만들었고 또 T에 해당하는 "ㄷ"은 "ㄴ"에 한 획을 더하여 같은 자리에서 소리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글의 각 글자는 이런 방식으로 발성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을 아는 서구의 많은 학자나 지식인들은 이런 특이한 한글의 창조 원리를

감탄해 마지 않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특성에 대하여는 오늘날의 컴퓨터 과학자들도 경탄해 마지 않는다. 변정용 교수(동국대학교 전산학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지금 만능의 기계로 생각하는 컴퓨터는 단 두개의 숫자 "0"과 "1"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되풀이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순식간에 정보화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래요. 서양 음악의 경우 '도레미파솔라시도' 일곱개의 음만을 가지고 모짜르트의 고전음악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서태지의 랩음악까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한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28글자의 유한수의 기호와 몇가지의 규칙만으로 무한수에 가까운 천지자연의 소리를 만들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한글의 특성이지요. 그런 점에서 한글은 다른 어떤 글자보다 과학적이며 현대 첨단과학의 산물인 컴퓨터의 원리에 매우 잘 부합하는 문자입니다.

### 음소 문자와 음절문자의 두 장점을 가진 글자

한글은 한 글자가 한 음소를 표시하는 음소문자이다. 이것은 로마 알파벳과 같은 특성이다. 한글은 기본음소를 나타내는 24개의 글자가 있고 로마 알파벳은 26자의 기본음소를 가진 음성문자의 일종이다. 그런데 한글은 실제로 말을 적을 때에는 음소를 결합하여 음절문자로 만들어 쓴다. "비, 밥, 돈, 꿈" 등과 같이 글자를 한 두 개씩 결합하여 음절 단위로 단어를 적는다. 이것은 "boy, money" 따위와 같이 낱자만을 옆으로 늘어 놓는 로마 알파벳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이런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는 일본의 가나 문자와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 가나 문자는 음소 단위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カ, ナ, タ" 등 문자는 음절로만 표시되고 그것을 음소로 분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한글은 "가/ㄱ+ㅏ, 나/ㄴ+ㅏ



ㅏ"에서 보는 것처럼 음절과 음소의 양면으로 쓸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글은 음소문자 곧 알파벳 문자의 장점과 음절 문자의 장점을 동시에 지닌 희귀한 글자이다. 그래서 한글은 글자의 조합으로 술한 음절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어를 음절 단위로 적어 놓아 읽기가 편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산학자 변정용 교수는 이 점에 대하여 말한다.

로마자는 음절(音節)이 없는 음소(音素)문자로서 26자이지만 대문자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는 52개의 글자를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는 51자로 음소가 없는 음절문자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한글은 가나와 로마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음소 및 음절문자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창제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28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그것만으로 이미 9만자에 가까운 음절을 만들어 사용해왔고 훈민정음 해례에 따를 때 이론상으로는 28개의 기본글자를 몇가지 규칙만으로 무려 399여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글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한 눈에 구분되는 글자라는 점에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창성을 보인다. 자음과 모음은 생성 원리가 다를 뿐 아니라 그 형태 면에서 구분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하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모음은 수직선이나 수평선 등의 긴선을 이용해 디자인되어 있어 한 눈에 구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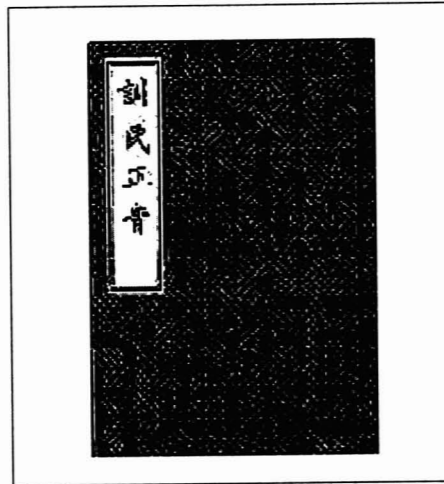
이는 로마자 알파벳이나 일본 문자 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로마자의 경우 모음 a/A, e/E 등은 자음 b/B, c/C 등과 형태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찾을 수가 없다. 일본말의 모음 あ/ア い/イ 등과 자음 か/カ, た/タ 등과 형태상으로

일률적인 구분이 안 된다.

앞에 인용한 Sampson 등의 글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곧 한글은 체계적으로 발명한 문자라는 점이 이런 특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 일정한 스키를 가진 글자

한글이 문자학적으로 으뜸가는 글자라



는 것은 한 글자에는 기본적으로 한 음소가 대응된다는 점이다.

가령, 모음 ㅏ, ㅣ, ㅓ 등은 어느 자리에서나 똑같은 소리로 발음된다. 이는 영어의 모음 a 가 나는 자리에 따라 7,8 가지로 발음되는 것과 대조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곧 apple, father, about, chalk, able, fall, weak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의 그 소리값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자음의 경우에도 한글의 ㄱ, ㄴ, ㄷ 등은 거의 동일한 기본음가를 드러낸다. 이에 반해 영어의 c가 s(cider), k(cocacola) 등으로 발음되고, g도 game, germ, change 등에서 보듯이 그 소리가 나는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한글이 문자학적 기능면에서 로마 알파벳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곧 한글은 그 음가를 알면 모르는 단어도 발음만은 할 수가 있는 잇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로마 알파벳의 경우에는 단어를 모르면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큰 불편이 따른다.

미국의 J. Diamond 교수(UCLA 의과대학의 생물학자)는 영어의 이러한 불규칙한 철자 방식을 비판하고 한글이야말로 그런 불규칙성이 없는 뛰어난 이상적인 글자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는 생물학자로서 진화론에 관심을 가지고 문자의 진화과정을 살피다가 우연히 한글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문자적 우수성에 감탄하여 한글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강의하는 김영기 교수(조지 워싱턴대학)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국의 많은 문자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거의 예외없이 놀라는 점은 한글이 한 음소에 한 글자만 있을 뿐 아니라 음운학적으로 관계있는 여러 글자들이 비슷한 꼴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이들에게 아주 인상적이고 능률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가장 익히기 쉬운 글자

한글의 한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배워서 익히기가 극히 쉽다는 점이다. '훈민정음' 원본의 "정인지 서(序)"에서는 한글이 배우기 쉬운 점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만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만에 배울 수 있느니라. 과연 이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님이 오늘날 입증되고 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거니와 한글을 처음으로 익히는 외국인들의 경험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 중에는 한글에 관하여 한 두어 시간 정도의 설명을 듣고 나면 시내의 한글 간판들을 웬만큼 읽는 사례가 많다. 그밖에도 한글을 쉽게 깨우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어 있다.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독일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W. Sasse 교수(함브르구대학)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맨 처음 보기에는 한글이 어렵다고 느



겼지만 실제로 배워 보니까 하루만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 글자 모양이 입모양이나 발음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주 인상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10살도 안된 애들도 취미로 한글을 금방 깨우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비밀편지를 쓸 때 한글을 씁니다. 독일말을 한글로 적는 것이지요. 그만큼 한글은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드디어 국제기구에서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유네

스코(UNESCO)에서는 해마다 (9년전부터)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고 있다. 이 상의 이름이 세종이라는 이름을 딴 것은 세종 임금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자를 없애는 글임을 세계가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글 덕분에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 세종의 민주 사상과 한글

세종대왕이 우리의 새 글자를 만들어

반포하였을 때에 그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그 뜻인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이 말에는 특히 세종대왕의 민주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제군주는 백성을 우매한 상태에 남겨두고 독재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은 백성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 나라의 정치를 비판하고 반항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종임금은 그와는 정반대로 백성을 가르쳐서 글자 그대로 "문민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가졌던 것이다.

### 세계과학사에서 15세기란 어떤 세기였는가?

서양의 과학은 지중해에 연해있는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고 히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기원 2세기에 이르러 히랍의 톨레미(Ptolemy)가 그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여 알마게스트(Almagest)라는 위대한 저서를 남겼다. 이는 중국의 장형(張衡, Zhang Heng)이 수운의상대(Shuyun Yixiang-tai, the walter-driven astronomical clock tower)를 건설한 시기와 일치한다. Ptolemy의 Almagest는 놀라운 속도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로마에 전달되고, 법왕청의 공인을 얻으면서 과학에 관한 거의 절대적인 권위로 전유럽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Almagest의 지구중심설(heliocentric theory)이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olas Copernicus)에 의해 부정된 1543년에 이르도록 유럽에는 이렇다할 새로운 업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기록된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는 중원을 치지한 원(元 Yuan)의 천문학자 곽수경(郭守敬 Guo Shoujing)의 여러 천문기기의 제작과 그의 탁월한 관측결과를 들 수 있겠다. Guo Shoujing의 업적은 13세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도 실로 경이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이 13세기의 Guo Shoujing의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탐구되어 그 결과가 끊임 없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Guo Shoujing의 13세기로부터 Copernicus의 16세기까지의 3세기(three centuries)에 주목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 300년이라는 긴 기간은 세계 어디에서나 과학 특히 천문학의 발전이 중단된 공백기였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기간은 과학발전을 위한 공백기가 아니었다. Guo Shoujing과 Copernicus의 꼭 중간에 해당하는 15세기의 전반기에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종합적인 전문대를 서울에 있는 경복궁 경회루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지어놓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기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일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조차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답답한 일이지는 하지만, 이제 서서히 세종대왕의 15세기의 과학을 위한 탐구 활동이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서나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다.

### 집안전



집안전

세종 임금은 백성들이 글을 깨우치고 그것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을 쌓고 문

화적 소양을 닦아서 스스로 나라의 일에 협력하고 문화발전이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을 창제했다. 이 얼마나 가늠하고 뛰어난 정치 철학인가? 500여년 전에 이미 현대의 민주정치사상을 글자 그대로 실현한 것이 세종대왕의 큰 뜻이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우리가 현재 널리 쓰는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을 전후해서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처음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9년에 그가 세운 "한글모" (조선어 강습원)나 그가 썼던 "한글표이

"(1913)라는 말 등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그 뒤 이 이름은 차차 널리 쓰이게 되어 광복 이후에는 "한글"이라는 이름이 국내외에 널리 퍼지게 된다. "한글"의 "한"은 어원적으로 몇 가지 뜻이 있다. '하나'(한 마음), '큼/大'(한길, 한 발), '바름/正'(한가운데, 한낫) 등의 의미를 지닌다. 주시경 선생은 이 "한글"이라는 단어아말로 우리의 위대한 글자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한 듯하다. 사실 오늘날 따져 보아도 한글이라는 이름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위대하고, 바른 글자'를 가리키는데 알맞다. ■

# 이승훈 용자

## 주택용자 및 재용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용자해 드립니다

자금출처가 필요가 필요없는

No Income Verification

크레딧이 나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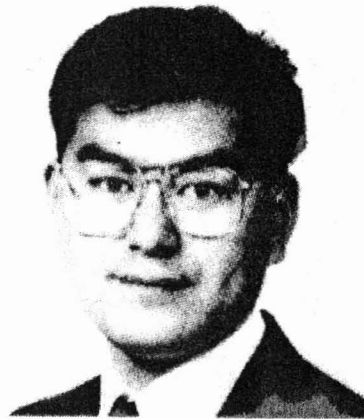
영주권이 없는 경우

보다 낮은 이자

보다 적은 비용

보다 빠른 용자

Office (425)455-0100  
 Pager (Sea) (206)969-3271  
 (Tac) (253)596-7353  
 Mobile (206)949-0801



대표 이승훈 (Seung H. Lee)  
 Certified Mortgage Originator

**Seattle Pacific**  
 M O R T G A G E I N C.  
 919 124th Ave. N.E. #104, Bellevue, WA 98005

# 대한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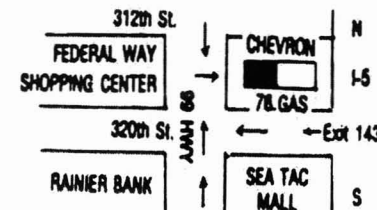
TACOMA (253)952-5595  
 SEATTLE (253)941-8866  
 FAX (253)941-5624  
 장거리무료전화 1-800-940-8868



TOP SALES AGENCY

**365일 가장 싼 항공표만 판매합니다.**

공신력  
 국제항공운송협회 공인대리점  
 국내항공운송협회 공인대리점  
 아시아항공대리점(96년 Top Sales Agency)  
 미주항공운송협회 Active회원  
 전 워싱턴주 상공회의소회장 및 미주총연 사무총장  
 하와이 순회 법정 통역관  
 대통령 표창



대한프라자 #5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유급대출**

# SBA론 - PLP 자체승인

나라은행은 우대용자은행이기 때문에 SBA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SBA(PLP)용자 ■ 부동산 용자 ■ 국제부 용자
- 각종 상업용자 ■ 장비리스

**나라은행 시애틀사무소**  
 1010 S. 336th St. #203 Federal Way, WA 98003  
**253-815-9757**

www.narabankna.com



보험은 생활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예상하고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측되는 손실을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분산 시킴으로써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보험 제도가 보험 회사와 민간 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의 보험 회사가 각종 보험을 함께 취급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보험회사가 있으나, 소비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가장 싼 보험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보험을 살 때에는 보험 회사의 직원이나 보험 전문 판매원으로부터 살 수도 있고, 생명 보험이나 재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살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험을 가입할 때나 사고가 나 보상을 신청할 때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생명 보험, 의료 보험 등 각종 보험의 내용과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가능한 낮은 보험료를 얻는 방법들을 가입 전 미리 알아두십시오.

## 자동차 보험

차량 보험은 크게 두가지 Full Coverage 와 Liability 두가지가 있다. Full Coverage는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및 자신의 차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Liability는 본인의 실수로 사고시 상대방의 수리비만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며 자신의 차는 자비로 고쳐야 한다.

보험을 살때는 모든 항목을 잘 살펴 보아야한다. 보통 Full Coverage보험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① Bodily Injury Liability, ② Property Damage Liability, ③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④Uninsured motorists property damage, ⑤ Medical expenses

이런 항목들이 얼마를 커버하는냐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 Full Coverage 보험에서 흔히들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Deductible 이다. 만일 Deductible이 \$1,000 일 경우는 사고시 \$1,000이하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1,000이상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만일 Deductible이 \$500 일 경우에는 \$500이하의 수리비는 본인이, 이상 일 경우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500 Deductible 보험은 \$1,000 Deductible 보험 보다 다른 조건이 같을경우 비싸다. Liability보험은 본인의 차가 오래되고



대부분의 주에서 모든 자동차들이 적어도 책임 보험은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가 오래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소한의 책임 보험 외에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의 시장 가격을 책정해 수표를 끊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 가격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를 보상하는 보험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을 때 들면 된다. 보험회사는 워낙 많고 종류도 다양하여 추천을 하기가 참 힘들다.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고 고르는 것이 좋겠다.

어떤 회사에서는 성적이 좋은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보통 기혼자인 경우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미혼이며 25세 이하, 빨간색 스포츠카를 가진 경우가 가장 비싼 경우가 된다.

## 건강보험 안내

최근들어, 건강보험의 종류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다양해졌다.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s)',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s)', 'Point-of-Service (POS), 전통적인 'Indemnity Plan' 등이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Medicare', 'Medicare Supplement Plan', 'Long Term Care Insurance' 그리고 극빈자를 위한 'Medicaid'가 있다.

치과 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건강 보험 가입을 원할 때, 흔히 HMOs와 PPOs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된다. HMOs, PPOs 의 특징과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PPOs : 가입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과 병원들을 이용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게된다

\*HMOs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를 'Individual Practice Associations(IPA) 가맹의사들에서 선택해야하고, 그 주치의를 통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주치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정 수당(Capitation Payment)을 받는다. 장점은, 디덕터블과 코 인슈런스의 부담이 거의 없는 것이다. 단점은, 주치의와 지정 병원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과 전문의 진료 필요시,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의료비가 지

불되는 것 등이다. HMOs 가입 환자들이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최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같은 PPO에도 그 종류가 다양하니,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택 화재 보험

주택 화재 보험료 절약 방법

▲여러 보험 회사의 가격을 알아보고 비교합니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평판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가 얼마나 보험료를 깎아 줄 수 있는 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상하기 전에 자기가 부담하는 요금인 Deductible을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같은 보험회사에서 듭니다.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 혹은 책임 보험을 같이 들면 5-15% 정도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에 보험료가 얼마나 들 지 미리 생각합니다. 보통, 새 집인 경우 8-15%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홍수 대비 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므로,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의 집을 사지 않으면 일년에 \$400인 홍수 대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소방서나 소방 장비 근처에 있으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주택 보험을 살 때, 대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모르고 대지의 가격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화재 보험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Named-Peril Insurance이고 다른 하나는 All-Risk Insurance입니다. 전자가 보험 외관에 명시되어 있는 외관에 대한 보상만 하는 반면에, 후자는 보험 외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주택 보험의 외관에서 보통 제외됩니다.

- 홍수에 의한 피해
- 지진에 의한 피해
- 전염병이나 핵 사고 피해
- 지과 반작용에 의한 피해

▲연기 감지 장치나 경보 장치, 혹은 전기 잠금장치 같은 주택 보안 시설을 하게 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가격과 보험료 할인 여부 및 할인율을 먼저 알아보고 비교한 후에 설치를 결정합니다. ▲금연을 하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일년에 23,000건 이상의 화재가 담배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거주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어떤 보험 회사들은 보험료를 낮춥니다.

▲은퇴한 노인들에게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보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은퇴해서 집에 머무는 분들은 밖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화재를 빨리 알아내고, 주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므로, 어떤 보험 회사들은 55세 이상의 은퇴한 노인들에게 10%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줍니다.

▲단체 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학교 동창들이나 직장 동료등과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십시오.

▲같은 보험 회사에 오랫동안 보험을 들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까지 있으면 5%, 6년 이상 있으면 10%까지 할인해 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보험 대상에 변화가 있는 지 확인합니다. 새로 구입한 물건이나 시설이 보험료에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재해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고 정부 계획을 통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담당자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다 낮은 가격의 보험을 살 수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 세입자 보험

아파트의 건물주가 드는 보험은 재해시 세입자의 개인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나 연기, 고의적 파괴 행위, 도난, 폭발, 폭풍우, 누수 등의 피해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보험을 듭니다. 세입자 보험은 또한 가입자의 집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가입자나 그 가족, 혹은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배상이나 법정에 갔을 경우의 소송 비용을 책임지게 되며 재해 발생 후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시로 수리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지붕이나 벽, 문, 그리고 창문 등을 비닐이나 나무판 등으로 막습니다. 위험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의 계산서를 보관하면 보험 회사에서 그 만큼 되돌려 줍니다. 임시로 수리를 할 때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금액이 전체 보상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액 책정 담당자가 도착해 손실을 책정하기 전에 영구적인 수리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기술자에게 검사를 받기전에는 물에 젖었던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험 담당자나 보험회사에 손실을 보고합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액이 자기 부담금액 보다 많은 지, 보상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건물수리건적이 필요한 지 등을 문의합니다.

▲재해가 일어난 후 추가로 들어가는 생활비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식품이나, 임시 주거비, 임시 주거에 따르는 전화나 전기 가설비, 교통비, 창고 보관비, 가구 대여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보상 청구 양식을 보험 회사로부터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고, 재해 후 피해를 감정할 수 있도록 인가된 피해액 감정 전문가를 불러 주택의 손상을 검사하게 합니다. 피해액 감정 담당자가 오기 전에 그에게 줄 피해 목록을 준비합니다. 피해 목록을 만들 때에는 제품명

과 모델명 등을 표시합니다.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옷이나 운동 용품, 도구들, 도자기, 모포, 야외용 가구, 장식품들, 그리고 취미 생활 용품 들도 잊지 말고 목록에 올립니다. 영수증이나 청구서, 사진 등 수리나 재구매에 필요한 모든 기록들을 모아 보관합니다. 아무 기록이 없다면 자신이나 가족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를 주고 사서 어디에 두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상된 가구나 물건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피해 감정 담당자가 보기를 원할 지도 모릅니다. 건물의 손상도 모두 알아놓습니다. 차고나 도구 선반, 수영장 바닥 등도 잊지 마십시오. 벽의 균열이나 천장 및 마루의 손상, 기와의 손실 등 모든것을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의심된다면 허가받은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도 검사해야 합니다. 믿을 만 하고 인가받은 재건회사로부터 자재 및 공사비용을 자세히 적은 명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피해액 감정사 외에 보험회사와 상관없는 공공 피해 감정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공공 피해 감정사를 쓰려면 큰 재해 후 집집마다 다니는 개인을 쓰지 말고 법적으로 인가받고 전문가

가 추천하는 이들을 써야 합니다.

▲일단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 양방이 책정된 피해 보상액에 만족하게 되면, 가입자는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의 책정은 가입자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 드는 비용 일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고, 재해전 건물의 깃가를 책정해 그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유의해서 약관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책정된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보험 회사에 재고를 의뢰합니다.

▲보험 회사로부터 처음으로 받는 수표는 최종 보상금이 아니고 선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손실은 재해 발생 후 1년 이내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과 동시에 개인 소유물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두 장의 수표를 받습니다. 임시 거주를 위한 추가 생활비로 나오는 수표 역시 따로 받습니다. 주택이 저당잡힌 경우는 주택 수리용 수표가 보험 가입자와 저당권자 두 명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수표를 사용할 때에 저당권자나 은행의 배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소유물 배상을 위한 수표와 추가 생활비용 수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지 살펴봅니다. 혹

시 저당권자의 이름이 같이 명시되어 있으면 수표 사용 시 저당권자나 은행의 배서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생명 보험

생명보험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된다. 첫째는 한 가정의 경제 주체가 되는 가장의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유고시에 남은 가족들에게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이다. 둘째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로부터 20년 혹은 30년 더 살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다.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용도는 가장의 조기 사망시에는 생존 부양가족을 위한 생계비, 생존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 개인 빚과 사업상의 채무 해결, 유산 상속에 필요한 상속세금 마련, 유언 재판소 비용 등으로 쓰여진다. 그리고, 가입자가 장수할 경우 에는 생명보험의 연금화로 노후 자금이 된다.

생명보험의 종류에는 Term Life(기간성 생명보험)와 Permanent Life(영구성 혹은 저축성)가 있다. 기간성 생명보험은 최소의 보험료로 단기적 계획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권장되고 'Cash Value' 는 발생하지 않는다. 5, 10, 15, 20년 Term 등이 있고, 그기간 동안에는 계약 당시의 보험료가 유지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저축성 보험에는 Whole Life, Universal Life 그리고 Variable Life 가 있다. 모두 캐시 벨류가 적립되나, 각자 매우 다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보험에 이점과 자신의 경제 능력과 장래 계획에 대해 의논한 후, 가장 적절한 플랜을 선택 하길 권장한다. 캐시벨류는 자녀들의 학자금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loan' (융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가입 요건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한다. 일단 가입한 후에는 개개인의 보험 에이전트와의 지속적인 검토와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 상업용 보험 (Commercial Line Insurance)

기업은 그 수입의 원천을 그 사업체가 갖고 있는 자산과 가동능력에서 찾을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화재, 폭풍우, 홍수,지진, 폭동, 도난등의 발생으로 하루 아침에 상실될 수 있으며, 또한 예기치 않은 방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혀, 그 결과 책임을 묻게 되고, 이로인해 법적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의 도산 또는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건전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수적으로 강구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가 보험이라 할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위기에 대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기업은 도박(賭博)을 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 I 상업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Building & Personal Property (건물 및 개인재산)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장비, 상품등 모든 내용물(Contents)이 보상의 범위에 포함 된다.

▲Deductible(본인 부담액) : 피해 발생시, 가입자가 부담 하는 금액 (예\$1000 \$2,500 \$5,000 등)

▲Actual Cash Value(감가상각을한 실제가격)

▲Replacement Cost Value(대체보상가격)

▲Co-Insurance(공동부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시의 실제 그재산의 가격과,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비교하여, 일정한도( Co Insurance)이상을 부보하면 피해액의 100%를 보상하여 주는 조항

어떠한 경우에 손실 보상을 받을수 있나?

▲Basic Form 인 경우: ①화재 ②번개 및 폭발 ③폭풍우 또는 우박 ④연기 ⑤

항공기나 자동차 ⑥폭동/내란/파괴.만행 ⑦소화장치누수 ⑧공간의 함몰 ⑨화산활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

▲Broad Form 인 경우: Basic Form 의 한 원인 외에 ①유리파손 ②낙하물체에 의한 피해 ③눈,얼음 진눈개비의 무게 ④돌발적인 물의 방출로 인한 피해 ⑤건물의 붕괴 등에 의한 피해도 보상된다.

▲Special Form은 이리 이러한 것은 않된다고 제외(Exclusion)된 조항의에는 모두 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이므로, Basic Form 및 Broad Form에서 Cover 되는 내용은 물론 도난도 포함 된다. 일반적으로, Special Form에서 Cover 되지 않는(Exclusion) 조항은 \*법령 또는 조례 \*지각변동, 지진 \*정부조치 \*전쟁 \*보일러 폭발 \*핵위험물 \*정전 \*홍수, 진흙사태에 의한 피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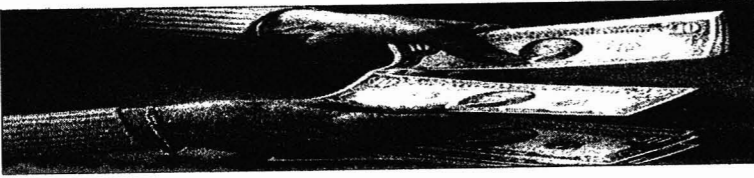
#### II. 수입에 대한 손실보상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Coverage):

영업의 중단등으로 발생된 수입에 대한 손실 및 원상회복에 소요된 경비를 보상해 주는 조항으로, 임금, 임대료, 부채상환금,세금, 기타비용등의 Continuing Operation Expense 와 Net Income (순소득)을 보상

#### III. 사업체 책임배상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 주는 "Occurrence Form"과 사고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는 "Claim Made Form"이 있다. 부당해고, 성희롱, 차별대우 등은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라는 별도의 Coverage가 필요하며, Pollution Liability, Professional Liability,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등도 별도가입을 요한다. Liability의 보험료는 건물및매장의 크기, 연간 매상액, 연간 급료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험가입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

**김의정씨에게 전하하셨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돈을,**  
**적약해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비즈니스보험**  
**주택보험 ● 생명보험 ● 의료보험**  
**김 의정 종합보험**

Phone : (206)229-7360 Fax : (206)343-7546  
Office : 7930 230th SW Edmonds, WA 98026



한인회보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138 E 8TH STREET, TACOMA, WA 98408  
252-555-4222 전화 252-531-4227

한인회보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워싱턴주 한인세탁협회

WASHINGTON STATE KOREAN DRY CLEANER ASSOCIATION  
7941 MARTIN WAY S E OLYMPIA, WA 98506  
425-265-9933

한인회보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워싱턴주 한인생활상담소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302 7TH STREET SEATTLE, WA 98103  
206/704-5881 전화 206/704-4828 팩스

한인회보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타코마 한인회

KOREAN SOCIETY OF TACOMA  
808 PACIFIC AVE. S. TACOMA, WA 98404  
252-377-1017 전화 252-377-1017

한인회보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WASHINGTON  
1200 SOUTH ANNELO STREET, SEATTLE, WA 98108

한인회보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시사저널

THE SHISA JOURNAL  
1120 SOUTH 30TH PLACE FEDERAL WAY, WASHINGTON  
206/861-3570 전화 206/861-3572 팩스

SHILLA



新 新 羅 RESTURANT

한식 · 일식

귀하신 손님 모신다면...

SUSHI · SASHIMI  
즉석불고기 · 해물전골  
7days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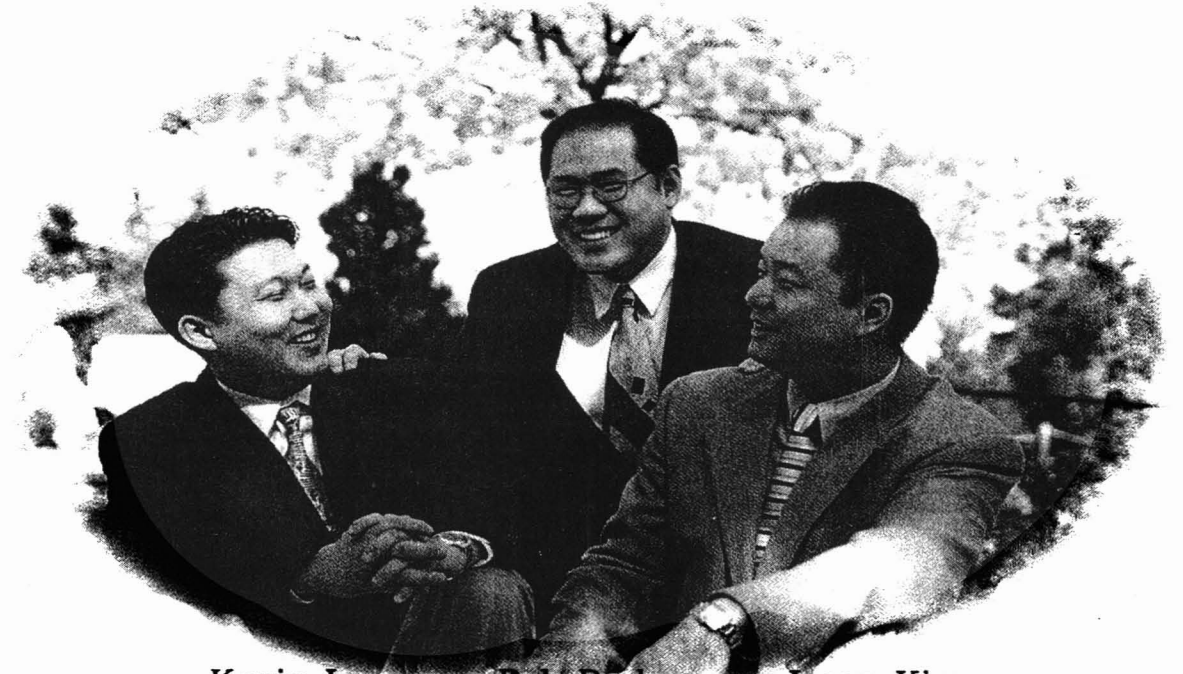
623-9996 · 223-9289  
2300 8th at Denny

용자!

이시대 최고의 프로들인

Korean-American 전문가들이  
귀하를 도와드립니다.

주택용자 전문 및 상업용자는 프로에게 맡기세요  
귀하의 어려움을 10년 이상의 경력과 따뜻한 마음과 인격  
그리고 기량을 갖춘 이시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귀하를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Kevin Lee  
Senior Loan Officer  
Pager: (206) 977-8307  
1-888-204-5159  
Mobil: (206) 963-7166  
Fax: (425) 646-0783  
Office: (425) 646-4765

Bob Park  
Senior Loan Officer  
Pager: (206) 989-2818  
Mobil: (206) 940-5399  
Fax: (425) 646-0783  
Office: (425) 646-4765

Jason Kim  
Senior Loan Officer  
Pager: (206) 341-8367  
Mobil: (206) 579-3576  
Fax: (425) 646-0783  
Office: (425) 646-4765

1-800-861-1672

주택용자 및 상업용자는 프로에게 맡기세요.



전진주

오늘 큰 아이 학교에 새로 본국에서 전학온 남학생 가족의 대화도중에 잠깐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이 중학교에는 한국학생이 몇 명이 되나요?”. 잘나오만까지 생각이 난다더니, 그 간단한 질문에 내 머릿속이 한 순간에 멍하게 엉켜버렸다. 곧, “ESL 반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하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아이도 있고, 입양되어온 아이들, 한인 혼혈아들도 있습니다.’ 라고 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연 미국 속의 이 모든 ‘한인’들은 자기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또한 부모와 자녀들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떠오른다.

큰 아이는 자신을 Korean-American 으로 생각한 Korean-American, 나는 이 단어 자체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교민생활의 애로사항이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아 폭 넓은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이다. 그러나 또한 한층 더 높은 스트레스이기도하다.

상담소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곳을 찾는 첫째원인 언어불편에서 오고 단일민족의 자긍심이 다른 여러 소수민족과의 화합이나 주류사회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주요인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세계지도를 보았을 때, 더 이상 한반도가 중앙에 있지 않고 미합중국이 있었다.

같은 지구의 그림인데도 우리 나라가 가장자리로 밀려난 지도는 꺾이나 낫설었다.

각 나라마다 세계지도를 인쇄할 때 공통적으로 자국 지도를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자민족중심 사상(ethnocentrism)이 인종편견 또는 인종혐오사상의 출발이다.

나는 우리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이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다. 내가 소중하므로 남도 존중한다는 가치관과 책임감 키우기에 앞서서 소속감 기르기에 힘썼다.

특히 우리가 사는 와싱턴주에 대한 애항심 북돋우기로 사회속제와 관련된 명소, 전시관등을 방문하였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각종 페어(fair)나 퍼레이드 구경가기, 골 스카우트 멤버활동, 커뮤니티 자원봉사등 지원하였다.

투표에도 참여하고 새해에는 색동한복을 입혀 갈비구이와 만두를 돌렸다.

나는 요사이 부모교실 강의에 열심히 나있다. 그 주요취지는 간단히 말해서 ‘더불어 사는 좋은 동네 이루기’이며 그 목적은 우리 자녀, 자손들이 그 좋은 정신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술선수범 하자는 데에 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아이들의 고향인 이곳에 함께 정들어 나는 어색하고 힘들고 여전히 한쪽은 외로워도 후대의 밑거름이 되어 보고자 한다.



장미수

Seattle의 한여름, 미 북서부 지방의 가장 큰 축제에 우리의 이름답고 자랑스런 고유 문화를 이 지역사회에 선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역단체, 사업체, 문화단체들이 참여하여 각단체 특성에 어울리고 보여주고 싶은 의상, 예쁘게 장식한 꽃차, 귀가 따지도록 크게 들리는 음악소리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났다.

매년 열리는 축제이지만 참여하는 일은 가히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노력과 자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주류사회로 생각되기 때문에 참여의 중요성을 느낀다. 이번 Seafair 행사를 보고난후의 생각이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 한국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은 아마 세계 제일일 것이다 말이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미국의 교포들도 짧은 시간에 성공한 사람이 다른 민족보다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뚝뚝 뭉치는 결집력이 약한 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다.

문득 어떤 일본인의 글이 생각난다. ‘한국사람만 한명을 일본인 열 명이 도저히 못 당한다. 그러나 열 명이 모여 있는 한국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부러워한다. 중국 커뮤니티의 단결력을,,, 이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힘이 발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Seattle 지역만 해도 7만여명의 동포가 산다는데 우리의 힘이 단결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본다. 무엇이 작은 것부터 시작할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인회비의 납부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회비를 납부한다면 상당한 재정이다. 한인회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교민들을 위하여 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글학교 지원, 커뮤니티 센터 신설, 노인 아파트 신설, 그리고 봉사단체 지원등....

그리고 한인회 자체가 이쪽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몰도 고여 있으면 썩듯이 이제 우리도 똑똑한 젊은이들을 많이 발굴하여 그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변화는 하는 모습으로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희망차고 발전하는 한인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말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지만 말고 무엇을 먼저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민족들도 모든 힘과 능력을 한데 모아 이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모든 한인공동체의 가장 모범적인 한인회가 되도록 하자.

1999년 11월



유진규

꽤 무더운 날씨가. 행렬출발 몇시간 전에 집합됐다. 오후의 땀방아래 그늘이나 없는 씨애틀 센타 주차장에 죽늘어져 출발을 기다리려니 황금같은 주말을 허비 하는 듯 한심스런 생각이 앞선다. 행사 준비위원들만이 분주히 움직이는 중에 그레두 이것이 조그마한 봉사이거니 자위애버리고 행렬출발만 기다린다. 서양식의 화려한 의상, 무대와 경쾌한 음악으로 압도하는 수많은 다른 그룹들의 예행연습이 부러워보인다.

수백명은 죽이 돼보이는 무술복으로 단장한 중국인들의 인예전술로 주위를 압도한다. 한민족의 뭉가를 보여 주겠다고 선택된 꽃가마 결혼행렬, 주차장 한곳에 놓여진 꽃가마 한층 초라해 보인다. 표마신랑을 태우고 갈 웨소한 나귀가 그나마 아이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6학년 동보 신랑을 한번등에 태우더니 조랑말이 무겁다고 기겁을 한다.

아이고! 자그만지 먹으라니까, 6살짜리 진호를 태우더니 큰손을 껌벅이며 쫓는다. 허나 어찌하랴, 예정대로 110 파운드짜리 표마 신랑을 3마일도 못태우고 가면 어찌 나귀라 할수 있겠냐며 강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전통신랑복장에 사모관대까지 차려입고 말을 타고 행진한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전진난민이다. 첫행렬 출발쯤되어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고 우리도 준비에 들어갔다. 가마주위에는 8명의 젊은이들이 무명복장의 가마꾼으로 변신했다. 7살짜리 표마신부 민희도 화려한 신부복에 연지근지 찢고 가마에 좌정했다. 흔들리는 가마에서 멀미할까봐 멀미약을 미리 먹이는 신부엄마의 각오도 비장했다. 6살 진호부터 어른들까지 청사초롱을 들고 가마 양옆에 도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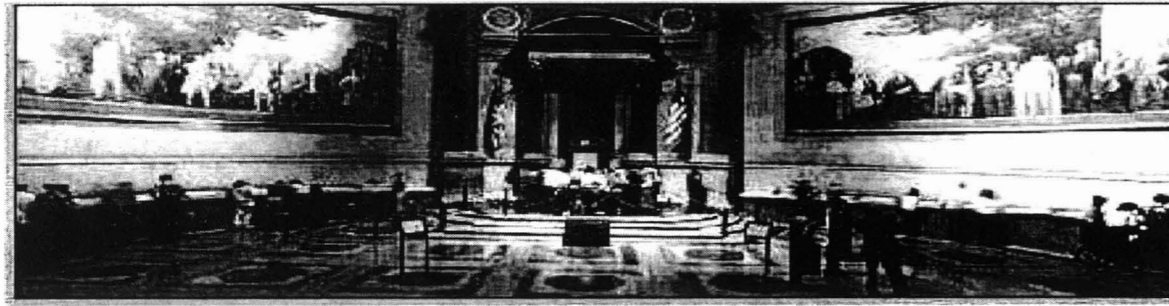
드디어 출발! 8명의 젊은 가마꾼이 날렵에 보이는 가마를 번쩍들었다. 표마신랑 지라도 나귀의 힘든보습을 알고 내려서 함박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며 활보한다. 항상 절없이보이던 아이들이 끝까지 자기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스럽다. 바로이건 것이 현장교육이 아닌가 싶다. 행사를 준비하고 밤늦도록 고생하고 있는 한인회 임원들을 다시보게되었다. 앞으로도 할수있으면 생각을 했다.

나에게는 씨페어 참가가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물론 끝까지 말썽안부리고 따라와준 우리 아이들도 큰 경험 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내년에도 꼭 나가고 싶다고 하는 어린이들이 왜 그렇게 커 보이는 지 미국 사회의 큰 장점은 비로 이런것이다. 모두다 행사에 참여하여 Korean-American 으로서 자긍심을 북돋는 기회가 되었던것 같다.

1999년 11월  
표마신랑 아버지 유진규



# 시민권 준비강좌



시민권을 왜 취득하려고 하느냐? 시험관이 묻게 되면 첫째가 투표하려고, 그 다음엔 미국 여권으로 해외여행할 수 있고, 연방정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할 때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답하게 된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바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자격조건이 우선 갖추어져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합법 이민자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지만, 보통 만 5년이 지나야 한다. 범죄기록이 일체없는 도덕성도 필요하다. 세금도 잘 납부하였고, 이혼이나 별거했을 경우 자녀 양육비도 확인한다.

만 5년이라고 하지만 1년안에, 즉 한 회계연도안에 6개월이상 무단히 해외에 나가있으면 그 이전것은 헛수 계산에서 문제가 될수있다.

신청서는 지방 이민국 사무실에 가면 얻게된다.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 책자를 받으면 2장 4면으로 적게된 신청서가 있는데 모든 설명서가 그속에 담겨져있다.

또한 미국역사와 정부조직을 묻는 시험문제 100문제가 들어있고 문장 받아쓰기에 참고가 될수있는 예문들이 있다. 그리고 신청서를 보내야 할 주소도 그곳에서 안내한다.

본인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신청서를 완전하게 작성했으면 이민국에서 필요

로 하는 다른 자료들도 함께 보내야 한다.

신청서 작성시 특히 유의할것은 자녀란을 적을때 어린이라고 하면 애들만 적는것이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자식이나 한국에 있는 자식이나 죽은자식 조차도 적어야 한다.



▲ Constitution of United State

3면에 보면 모든 자격조건을 체크하는 사항이 있는데 시민자원봉사 등록시 실패한 적이 있느냐는 항목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 나이가 25세이상이었다면 해당이 안되지만 18세부터 25세사이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사실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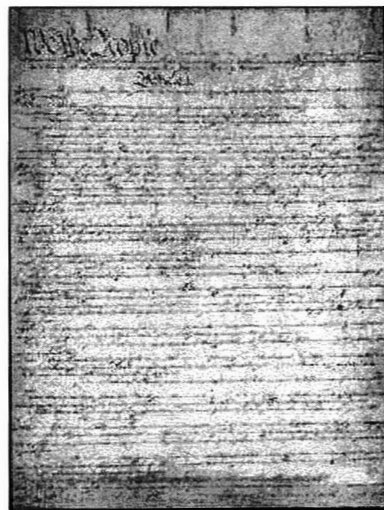
적어야 한다.

신청서를 완전하게 작성하였으면 사진 2장이 필요한데 이때 사진뒷면에 이름하고 영주권 번호를 적어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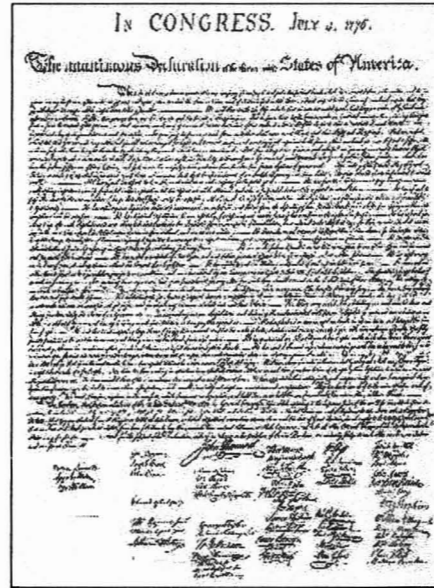
지문찍는 비용도 포함된 신청비 250불과 함께 영주권 앞뒤면 복사한 것을 동봉하여 이민국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를 보낸 후 2-3개월이 지나면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가 온다. 지문은 관할구역 경찰서에 연락해서 지정된 장소로 가서 찍으면 된다. 지문을 찍은 후 4-5개월만에 인터뷰에 응하라는 통지가 오게된다.

인터뷰에 대하여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려한다. 과거에는 인터뷰 할 때 미국역사나 정부조직을 묻는 것은 예외로 하



▲ The Bill of Right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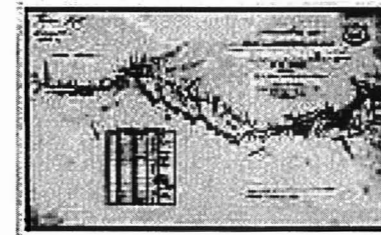
▲ Declaration of Independance 원본

고 개인신상이나 영어실력등을 묻곤 하였다.

즉 여러 커뮤니티 단체나 기관에 의탁하여 미국역사와 정부조직에 대한 필기 시험을 치뤄왔고 70점 이상만 맞으면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었다.

지금은 모든 인터뷰를 이민국 안에서

이민국 직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인터뷰는 3부분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신청서 4면과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한번 말로 묻게된다. 말을 정확히 못 알아들었



으면 다시 한번 말해달라하거나 천천히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신상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약, 선

서의 순서를 갖는다. 신상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미국역사와 정부조직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된다. 법무부에서 만든 시험문제가 100개 있는데 이중에서 15문제 정도를 이민관이 임의로 차출해서 묻게 된다. 임의라고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골라주는 문제를 묻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본인에게 해당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2-3가지만 약식으로 묻기도 하는데 이는 이민관의 개인재량이다. 아무튼 70점이상을 맞아야 합격이다. 두 번째 사항의 인터뷰가 끝나면 문장을 받아쓰라고 한다.

일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역사나 정부조직에 대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 비교적 간단한 문장으로서 동사로 말하면 현재동사나 현재진행형, 과거 진행형을 쓰면서 문장이 되는 것을 주로 불러준다. 노인들의 경우 특례가 있을 수 있다.

55세 이상으로서 1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50세가 되고 20년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면 한국말로 시험(인터뷰)에 응하게 된다.

이때 통역하는 사람이 동참하게 되는데 가족은 통역을 도와줄 수 없다. 영어나 한국어로 인터뷰 하던 간에 이민관이 합격이라고 판정하면 자기 사진 위에 싸인(서명)을 하라고 한다.

합격된 사람은 보통 당일 오후에 선서식을 갖게된다. 혹시 실패하면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다.

**시애틀 한인회 시민권 준비반**

시민권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본 시애틀 한인회 시민권 신청반으로 연락주십시오

1200 Angelo Street Seattle, Wa 98108  
(206)767-8071 전화 (206)767-2784 팩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시민권 준비위원회 위원장 한상국  
위 원: Regina 채 · 스티븐 김 · 김의정 · 이지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 ▲ 불고기와 들깨잎

들깨잎에 들어있는 철분의 양은 철분이 많기로 유명한 시금치 보다 2배 이상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쇠간과 맞먹고 있다. 들깨잎 30g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는 셈이니 그 영양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들깨잎에는 칼슘 등 무기질과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다. 들깨는 생활력이 강해 흡비력이 강하고 토양의 선택성이 적으므로 산성이 높은 개간지나 척박한 땅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또 들깨는 솔잎, 도토리, 메밀, 콩잎, 토란, 마, 연근, 고염, 개암, 팽나무잎, 쑥 등의 구황식품과 함께 비상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들깨잎 100g의 일반 성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백질 3.7g, 지방 0.4g, 당질 5.8g, 섬유 1.9g, 회분 1.8g, 칼슘 215mg, 철분 20mg, 비타민 A 3600IU, 비타민 C 46mg. 한편 불고기의 재료인 쇠고기의 성분을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쇠고기의 부위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심한데 살코기 100g의 일반 성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분에서 알수있듯이 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칼슘과 비타민 A가 매우 적고

비타민 C는 전혀 안 들어 있다. 그런데 들깨잎에는 칼슘과 철분, 비타민 A나 C가 매우 많이 들어 있다. 쇠고기의 단백질에는 동물의 정상 성장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다.

쇠고기의 지방은 스테아르산이나 팔미트산과 같은 융점이 높은 고급 포화지방산이 많아 소화 흡수가 좋지 못하다. 고급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필수 지방산의 요구량도 커진다. 소금구이를 할 때 필수 지방산이 많은 참기름을 곁들여 먹는 것은 영양상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또 쇠고기에는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참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들깨잎에는 쇠고기에 적은 칼슘 등 무기질이 많고 비타민 A와 C가 많을 뿐 아니라 녹색을 띠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이 엽록소는 직접적인 영양소는 아니나 세포 부활작용, 지혈작용, 감성 말초혈관 확장작용, 상처치유 촉진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등 특별한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과범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엽록소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엽록소는 식욕부진, 설사, 변비 같은 위장장애에 효과가 큰 것이 증명되고 있다. 위궤양에서 오는 출혈을 멎게 하는 것은 엽록소가 갖는 지혈작용 때문이다.

또 암의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불고기를 까맣게 태우면 트르질이 생기는데 그 안에 발암성 물질도 생성된다. 그러므로 불고기를 먹을 때 엽록소와 비타민 C가 풍부한 들깨잎을 곁들여 먹는다는 것은 암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엽록소와 비타민 C는 혈액을 받을 때 비타민 C가 대량 소비된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의 혈액속에는 비타민 C의 양이 정상인의 절반밖에 들어 있지 않다

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비타민 C는 사람의 면역 능력을 높여 준다. 들깨잎에는 다른 채소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있다. 거기다 양질의 섬유소를 가지고 있어 많이 먹었을 때 생기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 ▲ 돼지고기와 새우젓

삶은 돼지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새우젓에 찍어 먹는 것이다. 기름진 돼지고기에 짭짤한 새우젓을 곁들이면 고기의 맛도 좋아질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요리에 사용되는 육궁은 대부분 돼지고기다. 이는 맛이 좋을 뿐 아니라 그 어느 고기보다도 영양가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는 색깔이 옅고 육질이 부드러우며, 고기의 지방질이 맛이 좋고 소화도 잘 된다.

돼지고기는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를 뿐 아니라 성분도 다른데, 보통 단백질 12~17%, 지방 22~44%를 함유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 영양가가 매우 높다.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지방의 함량이 많은데 그 질 또한 매우 뛰어나다. 쇠고기의 지방과는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달라 쇠고기의 녹는 온도가 40~50°C로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돼지기름은 혀에 닿는 촉감도 부드럽고 맛도 좋다.

기름은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녹을수록 소화흡수가 잘 된다. 돼지기름을 정제한 것이 라드인데, 식품의 가공조리에 재료로 애용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의 함량이 높아 쇠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보다 10배나 더 많은 0.6mg% 나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돼지고기지만 옛날부터 쌀이나 보리 등 곡류 위주의 식생활로 담백한 식생활에 익숙해진 한국인에게는 다소 부담을 주는 식품이었다.

담백한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이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조상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조미료로 선택한 것이 새우젓이었다. 새우젓은 흰빛의 작은 새우에 소금을 뿌려 담근 것이다.

새우는 껍질이 있어 수분이 육질로 배어드는 것이 느리고, 내장에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어 다른 어패류보다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금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소금의 사용량은 새우의 신선도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35~40%, 가을에는 30%정도 넣는 것이 좋다. 새우젓이 변질되면 검게 변하고 단맛이 없어지며, 육질이 녹아서 국이 혼탁해지고 악취를 풍기게 된다. 그래서 돼지의 먹이로 주곤 했는데, 그것을 먹은 돼지가 죽는 일이 많았다.

새우 껍질은 주성분이 키틴이라는 단단한 고분자 물질이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 물질과 고농도의 소금 때문에 새우젓을 먹은 돼지가 죽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돼지와 새우젓은 상극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심리적인 것이 저변에 깔려 돼지고기와 새우젓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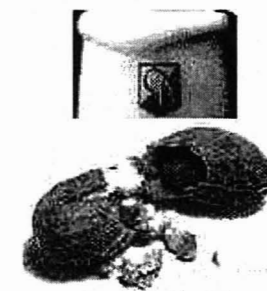
돼지고기의 주성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백질과 지방이다. 단백질이 소화되면 펩타이드를 거쳐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단백질 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다. 새우젓은 발효되는 동안에 대단히 많은 양의 프로테아제가 생성되어 소화제 구실을 한다. 사람들이 지방을 먹으면 체중에서 나오는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받는다. 그러면 지방은 가수분해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바뀌어 흡수된다.

지방 분해효소의 힘이 부족하면 지방이 분해되지 못해 설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새우젓에는 강력한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함유되어 있어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크게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찍어 먹는 것은 맛의 조화와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매우 합리적인 음식의 배합인 것이다.

### 함께 먹으면 나쁜 음식

#### ▲ 맥주와 땅콩



땀을 흘린 다음 마시는 맥주맛은 기가 막히게 좋다. 맥주는 친구와 정담을 나눌 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음료로도 애용되는데 '마시는 빵'이라는 별명에서 보듯 여러 가지 영양소도 골고루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맥주는 알코올을 4~5%가 가지고 있는 기호성 음료여서 마실때 간단한 스낵이나 안주를 곁들이게 마련이다. 가장 흔하게 먹는 것이 땅콩이다.

고소한 땅콩 맛이 씹새한 맥주와 잘 어울리고 땅콩이 함유하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비타민 B군은 간을 보호하는 영양 효률도 높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땅콩도 보관, 저장을 잘못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겉껍질과 속껍질까지 까서 만들어진 것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은 먹기는 편하지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땅콩은 껍질을 벗겨서 공기에 노출시키면 지방이 산화되어 유해한 과산화지방질이 만들어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고온 다습한 환경속에서는 배아 근처에 검은 곰팡이가 피는데 그렇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

질이다. 무심코 집어먹는 맥주 안주로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 ▲ 오이의 무

일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로 오이와 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원으로 중요하고 향미, 색깔, 씹히는 맛 등으로 식사에 변화와 풍족감을 준다.

오이에는 수분이 95% 정도, 무에는 90%나 들어 있는데 비타민으로는 C가 가장 많다. 오이에는 13mg, 무에는 15mg 가량 함유돼 있다. 비타민 C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며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생리작용을 한다. 피부미용과 관계가 깊으면 피부를 하얗게 하는 표백효과도 있고 감기 예방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비타민 C는 동물성 식품에는 없으므로 채소나 과일에서 공급해야 한다.

무생채나 물김치를 만들때 무심코 곁들이는 것이 오이다. 오이색깔은 무와 어울리고 맛도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포에 있던 아스코르빈제라는 효소가 나온다. 이것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다. 따라서 무와 오이를 섞으면 무의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된다.

#### 술과 어울리는 음식

술꾼이 아니라도 연말에는 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술에 강한 사람이라도 빈 속으로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고 숙취나 악취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다음날까지 계속 술냄새가 나고, 골치가 아픈 현상이 숙취이다.

이러한 숙취나 악취는 마신 술의 양과 템포에 따라 알코올의 분해에서 생기는 중간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마시는 술의 양이 절대적이기는 하나 알코올의 완전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하고 아세트알데히드의 축적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숙취나 악취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옹크리고 앉아 술을 마시면 호흡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 숙취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빈속에 술이 들어가면 빨리 취하게 되고 숙취 숙취가 잘 나타난다. 그래서 안주는 양의 균형을 잡을 뿐 아니라 숙취 악취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술의 알코올은 1g으로 7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면서 살람을 취하게 만들며, 양이 지나치면 죽음을 초래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술을 마시면 위벽을 통해서 약 20%의 알코올이 소화관을 필요없이 그대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술을 마신지 2, 3분이면 알코올은 신체 조직의 어느 곳이나 뚫고 들어간다. 위속에 음식 특히 지방질이 있으면 알코올의 흡수가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그래서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맥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어 위스키, 진, 브랜드, 보드카, 소주와 같은 증류주보다 알코올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진다. 삼페인이나 위스키 소다, 진도 닉등 탄산가스를 갖는 술은 위에서 장으로 통하는 유문을 크게 열기 때문에 알코올의 흡수를 빠르게 해 빨리 취하게 된다.

술을 마시면서 생각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타민 B군과 C의 섭취, 무기질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섭취. 셋째,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천연식품을 먹을 것. 넷째, 자극성 식품을 피할 것 등이다.

평상시에 충분한 영양식을 하고 있어도 술을 마시면 영양소의 부족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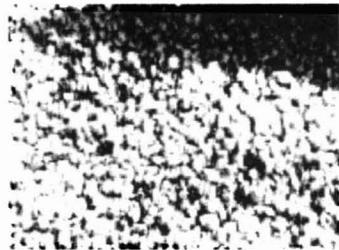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안주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좋다. 조금 매워도 막걸리 성분때문에 큰 부담을 안 준다. 소주 안주로 마른 오징어보다는 생오징어나 다른 생선찌개와 돼지고기 요리, 어포 등이 좋고 맵고 짠 것은 쾌양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맥주는 땅콩을 흔히 먹는

데 먹는 양을 조절못하면 살이 쪼다. 적포도주는 육류가 좋고 적포도주는 생선류가 어울린다. 위스키는 치즈, 육포, 잣, 호두 등이 좋은 안주이다.

###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울무

울무는 쌀과 비슷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 쌀 대체곡식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당뇨병, 암,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 성분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울무를 먹으면 무사마귀, 티눈 등이 말끔히 없어고 거친 피부는 놀라우리만큼 부드러워진다. 또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의 수분을 조절해 주고 폐내의 노폐물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폐증이 조절되고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



차로 마셔도 좋고 쌀과 섞어 밥을 지어 먹어도 좋고, 울무만을 으트밀처럼 죽으로 만들어 먹어도 그만이다. 폐결핵 환자의 영양식으로도 좋고 얼굴이나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황달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

건강식은 꾸준히 오래 계속하는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는 것이 지, 해열진통제처럼 하루 이를 먹어서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병이 되는 것도 오랫동안의 원인이 쌓여서 되는 것처럼 건강을 쌓아 올리는 데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기미에 좋은 레몬

요즘 슈퍼마켓에 가보면 계란처럼 재질이 달린 노란 레몬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레몬은 감귤류의 일종이지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미국 서해안 지역이나 호주, 지중해 연안 등에서 생산된다. 성분은 다른 감귤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애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레몬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굴처럼 먹지는 않고 칼데일이나 주스 또는 얇게 썰어서 생선튀김 등의 서양 요리에 곁들이는 데 사용된다. 새삼스럽게 말할 나위도 없지만 비타민 C는 혈관의 저항력을 높이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결합조직을 튼튼하게하여 피부를 매끄럽게 한다. 또 표백작용이 있어 기미 등의 색소를 환원시켜서 회개 해주기도 한다. 또 껍질에서는 레몬유라는 기름 성분이 생기는데 그속에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다. 무기질인 칼슘도 많이 들어 있다.

레몬 나무는 일년에 꽃이 세 번 피면서 계속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일년 내내 수확이 된다고 하니 신기하다. 집에서 레몬을 이용한 음료만드는 법을 두세가지 알아보자.

### ▲ 허니 레몬네이드

레몬껍질을 간 후 즙을 내어 컵에 담고 레몬즙의 3배가량의 냉수를 탄 다음, 꿀을 넣어 만든 음료인데 맛도 좋지만 피로 푸는데 그만이다.

### ▲ 와인 레몬스쿠시

역시 피로회복에 좋은 음료인데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 유리잔에 레몬즙, 설탕, 차게 냉각시킨 탄산수를 넣은 다음 적포도주를 적당히 부어 넣어면 된다.



### ▲ 피슬리, 오렌지, 레몬주스

피슬리는 서양 요리에 꼭 곁들이는 채소이다. 피슬리는 잘게 썰어서 헹궈서 씻은 후 즙을 내고, 레몬과 오렌지를 섞어 여기에 꿀을 넣어 맛을 내면 되는데 분량은 취향에 따라 가감하면 된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 좋다.

### 감기에는 채식을

감기는 일단 걸리면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육식은 좋지 않다. 아늑하게 아니라고 감기에 걸리면 고깃국 냄새만 맡아도 속이 매쓰겨워진다. 무를 강판에 갈아서 꿀에 재웠다가 먹으면 기침에 좋다.



감기에는 땀을 내는 것이 필요한데 청주 한컵을 따뜻하게 데운후 노른자를 넣어 휘저어 만든 계란술이 좋다. 파를 뿌리째 넣어 콩나물과 같이 끓여서 마신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면 땀이 나고 열이 내린다. 미나리국도 좋다. 파를 쥘어서 헹궈서 씻고 목에 찜질을 하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날때 효과가 있다.

감기라고 무턱대고 해열제를 쓰는 것보다 이런 자연요법이 몸의 저항력을 증가시켜 주어서 좋다. 비타민 C가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도 좋지만 갖고 다니기 번거로우므로 500mg짜리 비타민 C정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3, 4개 정도 복용하면 아주

좋고, 여성의 경우 피부도 희어진다.

### ▲ 기침감기에 좋은 금굴

굴은 껍질을 까고 먹는 것이 아니라 껍질째로 씹어 먹는다. 향기롭고 시면서 약간 쓴맛이 있으나, 열매가 길쭉한 것을 긴알굴, 둥근 것을 둥근알굴 또는 둥굴굴이라고 한다.

껍질째 먹는 것 외에 설탕에 절이거나 설탕을 넣고 끓인 것, 또는 술에 넣어 만든 것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금굴 500g을 물로 씻은 뒤 통째로 설탕 200g과 소주 1.8리터를 섞어 넣어 약 2개월간 어두운 곳에 저장해두면 마시기 좋은 금굴술이 된다. 하루 한 번 밤에 자기 직전에 소주잔으로 한 잔을 마시면 피로가 풀리면서 잠이 잘 온다.

기침이 나는 감기에도 매우 좋다. 금굴 10개를 썰어서 설탕을 조금넣고 물 400cc와 같이 끓인다. 끓으면 불을 끄고 뜨거울 때 불면서 마시면 좋은 감기약이 된다.

현대인은 감기 기운만 있다 하면 화학합성 약품으로 만든 해열제를 복용하는데 조물주가 내려주신 훌륭한 금굴로 이와 같은 약차를 달여 마시면 부작용도 없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합쳐져 훌륭한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노인들의 겨울철 기침에 가장 좋다.

### ▲ 부부 호흡의 묘약 대추

우리속담에 "양반 대추 한개가 하루 아침 해장" 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만큼 대추가 몸에 좋다는 뜻이 되겠다. 한약을 달일 때에 으레 대추를 같이 넣는 것도 대추가 모든 약과 잘 어울려서 조화가 되기 때문이다. 즉 약의 부작용을 막고 약때문에 위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대추는 양양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위장병, 빈혈증, 전신쇠약, 불면증 등에 좋으며 오래 먹으면 체력을 향상시킨다.

대추를 부부화합의 묘약이라고 하는데

대추를 달인 차에 꿀을 섞어 매일 마시면 강장, 강정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대추는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입에 맞도록 적당히 달여서 마시면 된다. 특히 여성이 신경이 날카롭고 히스테리가 있을 때에 대추 10개, 감초3g, 밀 10g을 같이 섞어 물을 넣고 달여서 마시면 신경질이 없어지고 천하태평이 된다. 이렇게 간단한 처방이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는지 신기하기만 한데 이 처방의 이름을 "감맥 대조탕"이라고 한다.

대추에 인삼을 넣고 달여서 마시면 위장이 약하거나, 이렇다 할 병도 없으면서도 원기가 없고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대추 10개에 파의 흰밀동을 물과 같이 넣고 달여서 취침 2시간 전에 마시면 잠이 잘오며, 몸살기운으로 전신이 아픈 것을 멈추는 효과가 있다.

"대조주"를 만들어 두고 마시면 강장제가 되며 노화예방에도 좋다. 대추 200g 설탕 200g에 소주 1리터를 넣어 약 2개월쯤 두면 꼭 알맞게 마시기 좋은 약술이 된다. 하루에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로 부터 시작하여 익숙해지면 한 잔 정도로 늘려도 좋다. 이런 익술은 한꺼번에 많이 복용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분량씩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대추는 살짝 수증기로 찌서 햇볕에 말려도 좋고 그냥 말려도 좋다. 대추에는 당분, 유기산, 점액질 등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어나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요즘 사이클릭AMP라는 특수 성분이 들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 ▲ 익기 좋은 장력지 땅콩





땅콩하면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땅콩을 즐겨 먹는다. 땅콩을 볶아먹는 것은 물론이고 피넛버터, 피넛 오일, 피넛 캔디 등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원래 땅콩의 원산지는 브라질인데 북미를 거쳐서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여 땅콩이니 호콩, 남경두라고도 한다. 꽃이 지면 자방이 길게 뻗어 땅속으로 들어가 결실을 맺으므로 낙화생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땅콩을 젊은 사람들 군것질감으로 생각하고 맥주 마실때 마른 안주가 되는 정도로 치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영양식 재료로 사용한다. 땅콩은 지방과 단백질이 약 50%로 듬뿍 들어 있으며 비타민 B1, C, E 등도 많이 들어 있고 미네랄도 풍부하다.

여드름이 많은 젊은이들이 땅콩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더욱 많이 생긴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만큼 지방분이 많으며 정력제가 된다는 뜻이 되겠다.

땅콩을 찢어 물로 죽처럼 끓여서 설탕과 소금을 넣어 만든 것을 노인이 먹으면 변비가 없어지고 피부가 윤택해진다. 중국 음식에서는 육류와 아우릴 땅콩을 같이 끓인 요리가 많다.

땅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습한 데 두면 땅콩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 곰팡이 성분이 독성이 강해 영국의 칠면조 사육장에서 곰팡이 생긴 땅콩을 사료로 주었다가 수만 마리를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땅콩의 속껍질을 까지 말고 그냥 소금물에 약간 담갔다가 껍질째로 씹어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 술안주로 좋다. 땅콩의 껍질째로 찜통에서 수증기로 찌서 뜨거울 때 껍질을 벗겨 먹는 맛도 또한 특이하다.

▲ 식욕을 촉진하는 포도주

술이 무슨 음식이냐고 필쩍 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의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부터 술은 적당히 잘 마시면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되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독약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약이라고 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식욕과 소화력을 증진시키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서양 사람들의 식사때에는 으레 포도주가 나온다.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며,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HDL형태로 만들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술 가운데서 약도 되고 음식도 되는 것이 포도주이다. 다른 술들은 모두 곡식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산성 식품인데, 포도주만은 과일즙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이다. 탄 술은 식사와 같이 마시면 술맛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객들은 술을 마실 때에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 음식의 맛이 더욱 좋아지며 식욕이 발동해 식사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작용은 포도주에 들어있는 산과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산미가 혀의 미각세포를 깨끗하게 해 맛에 예민하게 되고 위액분비를 자극하며, 탄닌은 혀바닥의 점액 단백질 계통의 음식찌꺼기 등을 응고시켜서 미각을 뚜렷하게 한다.

불고기를 먹을때 청주나 맥주를 마시면서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으면 양을 5할 정도로 더 먹게 된다는 실험이 있었다.

포도주를 마시면 피로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칼리성 식품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 주기 때문인데 성경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라고 써어 있다.

▲정력에 자신있는 사람들은 이 술을

현대인은 옛날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육체가 건강해졌는데도 건강에 대해서 열

등의식을 지닌 사람이 많다. 특히 정력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력주 몇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력을 아껴서 비축해두는 사람은 건전하고, 낭비 또는 과용하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마늘술, 컴프리술, 음양곽술 3가지를 만들어 같은 분량씩 섞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잔 정도 마시면 좋다.

① 마늘술

소주 1.8리터에 마늘 5통과 설탕300g정도 넣은 뒤 병마개를 막고 약 1개월 저장해두 마실수 있다. 마늘술을 매일 소주잔 1잔 정도 마시면 신경의 피로가 풀리고, 위장도 튼튼해진다.

② 컴프리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꽤 많이 유행했는데 요즘은 뜸해진 것 같다. 컴프리 녹즙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궤석이 생긴다는 설도 있고, 동물실험 결과 간에 해로운 성분이 있다는 설도 있으나 지나치게 그것만 외곶으로 먹으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다.

컴프리잎 말린 것을 병에 담고 잎분량의 약 2.5배의 소주를 부어넣는다. 설탕은 잎의 1/3정도면 된다. 역시 약 1개월 지나면 마시기 좋다. 매일 1잔 정도씩 마시면 강정, 강장, 거위 작용이 있으며 신경통, 동맥경화증 등에도 좋다.

③ 음양곽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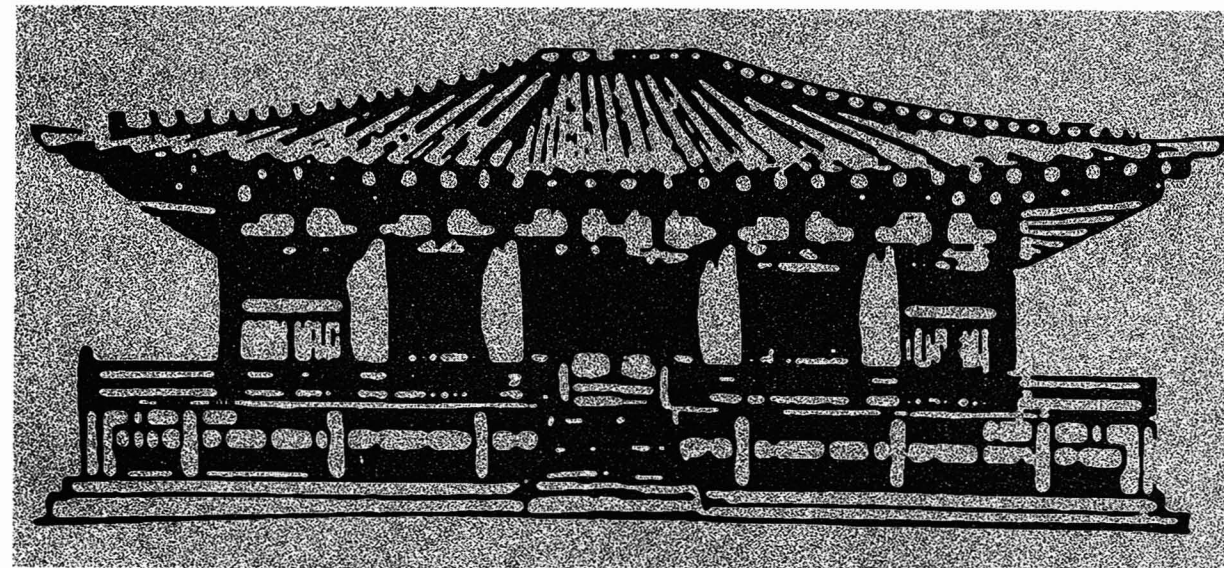
예부터 정력제라고 알려져 왔으며 특히 음양곽술은 선정비주라고 하여 강장,강정제로 유명하다.

음양곽을 건재상에서 구입해 잎줄기 등을 200g 정도 잘게 썰어 200g, 소주 1.8리터와 같이 병에 담근다. 이와같이 만든 3종류의 약용주를 걸러서 각각 같은 분량씩을 다른 병에 넣어 각테일을 만들어 매일 1잔씩 마셔도 좋다. ■

The Year of Korea

지금 전시중  
입장료 3불

할아버지 댁을 찾아서!  
(A Visit to Grandfather's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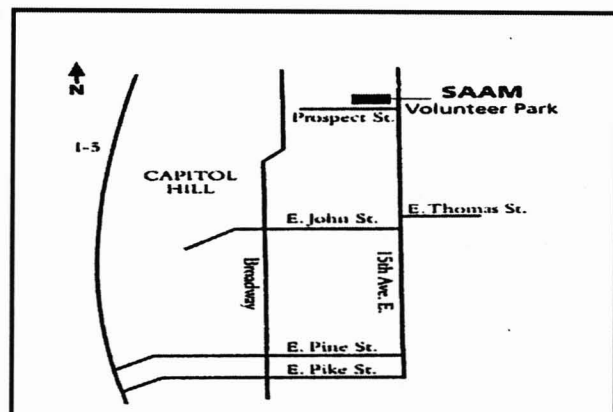


Oct 23, 1999 - Oct 2000  
시애틀 아시안 아트 뮤지엄, 발렌티어 파크  
14th Ave East & East Prospect Street, Seattle, Washington

발렌티어 파크의 한 가운데 자리잡은 시애틀 아시안 뮤지엄에 오시면 할아버지가 사시던 우리의 옛기와집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대문을 지나 사랑방, 안방, 부엌으로 재현된 한옥을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세요. 어린이를 위한 각종 공작놀이, 옷놀이, 붓글씨, 한복코너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웨미리 워크 샵: 토요일 11시 1시 30분까지. 스케줄 확인 바람

●오픈시간: 화-일 10am-5pm/목요일 10am-9pm  
월요일 휴관  
●입장료: 시니어, 어른, 학생 - \$3.00  
12세 이하 무료  
●안내전화: 206/654-3100, 206/654-3255  
www.seattleartmuseum.org

※매달 첫째 토요일은 무료 입장! 단, 12세 이하 손·자녀 동반 할아버지·할머니는 언제든 무료입장  
※SCHOOL FIELD TRIP, 단체 TOUR 특별할인 과 예약 받음

☞ 웨미리 멤버십(부모/자녀 포함)  
Seattle Art Museum/Seattle Asian Art Museum 사용가능. 각종 디스카운트 특전 연 65불! (Tax deductible)





우 옥 근 트라스코 여행사

오막 (OMAK)

“서부개척 시대”, “카우보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도시는 텍사스주,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등에 있는 남부 도시를 연상케 된다. 하지만 너무도 멀다. IMF시대를 맞이해 [주머니가 가벼운 아버지들] 아이들이 졸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간단한 캠핑도구와 밑반찬을 준비해 가면 2박3일쯤 일정으로 출발하자. 씨애틀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미국의 전형적인 옛 개척시대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매년 8월 2번째 주말 3일간에 걸쳐 로데오(말 타고 경주하는 놀이), 서부개척시대의 인디언과 기병대의 싸움을 연상케하는 Omak Suicide Race “ 목숨을 건 말타기 경주 ” 가 펼쳐진다.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카우보이들이 몰려든다. 이때가 되면 인구 4천명의 이 도시는 몰려든 수만의 관광객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소프트볼 구장 3개, 로데오(Rodeo) 경기장, 2개의 축구장, 올림픽 사이즈의 대형 수영장, 1000대를 수용하는 R.V. Park, 1천명이 잘 수 있는 인디언 텐트가 준비되어 있다. 8월 행사에는 급류 타기(White Water Raft Race), 카우보이 용품 경매, 카우보이 춤경연대회, 인디언 의식 및 축제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해발 837피트 고지에 있는 이 마을에서 비를 만날 걱정은 없다. 년중 300일간이나 햇볕이 내리 쏘이기 때문이다. 봄에는 사과꽃이 만발하고 골프, 낚시, 사진촬영, 봄꽃축제가 열린다. 가을에는 사냥과 풍선 타기 축제, 겨울에는 스키 및 스케이트 경주가 개최되는 곳이다.

문의는 1-800-225-6625 또는 (509) 826-1880. 주유소가 보일 때마다 자동차에 기름을 듬뿍 넣어두기 바란다.

가는 길은 세가지 ① I-90타고 동쪽/97HWY 만나면/북쪽으로 감(편도3시간30분) ②HWY2 동쪽/Wenatchee에서/97 HWY 북쪽으로.(이 경우 바베리안 빌리지(독일마을)도 함께 볼 수 있다) ③ I-5 N/Exit 230/Hwy 20 E./Okanogan에서/97 Hwy 북쪽으로.

San Juan Islands (산후인 군도)

씨애틀 사는 사람들이 손꼽는 가장 가까운 [신혼여행]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이 군도는 San Juan Island, Orcas Island, Shaw Island, Lopez Island 등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San Juan Island는 캠핑장소로 좋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라면 Orcas Island가 가장 멋지다.

[Orcas]는 인디언 언어로 돌고래( Killer Whale )란 뜻. 섬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는데서 유래되었고 이 군도를 중심으로 돌고래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보면 돌고래 떼를 쉽게 구경할 수 있다. 흰머리 독수리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 진귀한 야생동물, 야생화가 만발한 이 섬에서 대자연의 신비를 만끽해 보자. 자전거, 소형 모페드를 빌려 섬을 돌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다. 바다로 나가고 싶으면 “카약”을 빌려 돌고래 떼가 있는 곳으로 가 볼 수 있다. 교통편 때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가장 찾아가기 힘든 곳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온근과 끈기]가 요구된다. 터미널에 최소 2시간전 도착하자. Orcas 에는 호텔을 포함해 단지 22개의 숙박업소 밖에 없다. 이중 Rosario Resort (1-800-562-8820)가 유럽풍으로 지어져있다. 이 호텔의 사우나(마사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해 보통 몇 개월씩 예약만원. 꼭 바다가 보이는 방을 예약하자. (여기서는 경비를 아끼지 마시라)

Orcas Island Chamber of Commerce (360) 376-3766 페리안내 800/843-3779, 888/808-7977

\* 가는 길: I-5 N/Exit 230 W/Hwy 20/16 miles/Anacortes/Ferry Terminal. 수상비행기(Float Planes)로 가면 “퓨젯사운드”의 아름다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씨애틀 Lake Union 에서 출발하는 Kenmore Air(800/543-9595)는 1일 5회 출발한다. 요금은 편도 \$ 85, 왕복 \$ 148 반드시 2인 이상 예약해야 하고, 출발 30분전 터미널에 도착해야 한다.

레이니아 국립공원(Mt. Rainier Nat’ l Park)

씨애틀지역에 사는 교포들이 말하는 [눈산]. 그러나 정작 레이니아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본래의 이름은 “타호마 (Tahoma)” 인디언 말로 “성스러운 산”, “신의 산” 이란 뜻이다.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탐험가 죠지벤쿠버 선장이 자기 친구 피터 레이니아 해군제독의 이름을 붙여 사용한 것이 지금의 이름이다. 해발 14410피트(4392미터)로 서북미에서는 알래스카 맥킨리봉 다음으로 높은 산봉우리다. 일년 내내 눈에 덮인 이곳은 해발 1654미터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곳이 바로 파라다이스(Paradise). 우리말로 “천당”이다. 파라다이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전망대에 들어서면 사방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전망대, 히말라야 원정 미국대원에 참가했던 위테커형제의 육성으로 이산에 대해 들을 수 있다. 각종 동식물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고, 30분간 영화를 통해 이산에 대해 알게된다. 입구에 안내를 맡고있는 레인저(산악관리인)에게서 레이니아산 파라다이스 왔었다는 [스탬프]와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망대

에서 1키로 떨어진 곳에 Paradise Inn이 있다. 통나무로 지어진 이 호텔은 눈이 쌓여있지 않은 6개월간만 오픈한다. 매년 적설량은 15.24 미터, 가장 많이 온 때는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내린 28.5 미터이다. 씨애틀에서 출발할 경우 I-5 South/Exit 127 E./Hwy 7/Ashford/국립공원 입구 곳곳에 레이니아 국립공원 안내 표지판이 있어 쉽게 찾는다. 점심은 BBQ와 과일을 가져가 곳곳에 마련된 피크닉 장소에서 즐길 수 있다. 숙박을 원하는 경우 교포가 운영하는 산장을 이용하자.

\*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Gateway Inn 306/569-2506(대표 서광선)에는 통나무 산장이 7개/R.V Park/식당과 그로서리가 있다. 이곳은 매년 한국 등산학교 등반대와 한국인 등반대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할 정도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다. \* 또하나 남쪽 입구에서 1/4 마일 못미처 있는 the Lodge near Mt. Rainier 360/ 569-2312/Fax 360/569-0877는 권오병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 산장은 2명부터 25명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Cabin(4개)과 Lodge(3개)가 있다. 총 16에이커로 숲에 둘러 쌓여있다. 이밖에도 레이니아산 주변에서 비지네스를 하는 교포들도 점차 늘고있다.

세인트 헬렌산 (Mt. St. Helens)

헬렌산은 1980.5.18 아침 8시32분. 불과 수분동안의 화산폭발로 정상 400미터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우연의 일치인가? 이날은 우리 나라 광주민주항쟁의 함성이 극에 달했던 날이기도 하다. 이 화산폭발로 인해 근처의 모든 도시는 마비가 되었고, 화산재는 기류를 타고 멀리 뉴욕까지 날아갔다. 아무튼 레이니아산과 함께 아름답던 이산은 [지옥의 산]으로 변한다. 그리고 Helens 은 오래도록 Hell-land(지옥의 현장)로 불리웠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현재는 레이니아산보다 더 멋진 산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망대에서 보면 지금도 분화구에서 김을 뿜고있는 휴화산의 모습을 볼수있다. 새롭게 단장한 전망대에서 폭발전후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된다.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폭발 현장에 있던 지질학자, 기자, 일부 주민들 그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Hell-land 이 아닌 Beauty Helens “여성스런 아름다움”으로. 변한 것이다.

\*가는길: ① I-5 남쪽/ Exit 49 Castle Rock/504 도로 동쪽. ② I-5 남쪽/Exit 68/12번 도로 동쪽/Randle/25번 도로 99번 도로/Spirit Lake Viewpoints 오가는 길도 잘 닦아져 드라이브 코스로 만점이다. 안내정보: 360/414-3439. 씨애틀에서 헬렌산 전망대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 30분 걸린다. 아침 일찍 출발하면 헬렌산을 먼저보고 뒷길을

따라 레이니아 국립공원까지 하루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다.

베이커산 (Mt. Baker)

방학이 끝나기전 온가족이 함께 이곳을 가보시라. 갈때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충분히 준비하자. 이곳의 정상에는 레이니아 산과 달리 식당이나 선물센터가 전혀 없다. 산정에 오르면 너무도 멋진 절경에 감탄하게 된다. 많이 걷지않고도 눈밭을 걸을수 있고, 낚시대를 가지고 가면 송어를 낚을수도 있다. 아니, 송어라니? 빙하 녹은물이 자연스럽게 모여 만들어진 산정호수에는 송어떼가 놀고 있다. 입장료를 내고 산중턱에 놀라가면 첫번째 주차장이 있다. 이곳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주차장 주변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에서 점심식사를 한후 호숫가로 내려가다 보면 만년설이 있다.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기에 좋은 장소다. 두꺼운 반바지를 껴입고 눈밭에서 뒹구는 아이들이 연신 탄성을 지른다. 오솔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호수밑바닥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이런 무공해 호수가 여러곳에 있다. 바위틈에 앉아 호수를 뒷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니 [백두산 천지] 같다. 호숫가에서 신발을 벗고 물장구를 쳐보라. 여름내내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왕짜증] 과 [군더더기]가 싹 가실것이다. “음-마 환장하게 시원하다 야”, “서울사람이 웬 전라도 말쑥?”, “야가 몰라브네 요사는 쪼까 전라도 말을 쓰야혼다 알것나? 아가” 이말듣고 맛장구를 칠수밖엔. “알굿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가 쪼까 이해 허것소. 암튼 좋지요임 ?” 주차장에서 호숫가까지는 불과 1마일(1.6 키로)이다. 점심식사를 한후 자동차를 타고 계속해서 산위로 올라가면 또하나의 주차장이 있다. 왼쪽에는 석산(Shuksan.), 오른쪽엔 만년설로 뒤덮힌 베이커(Mt. Baker)가 버티고 있다. 케스케이드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산이고 이곳 스키장은 가장먼저 오픈하고 가장늦게 닫히는것으로도 유명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만년설이 보이는 오른쪽이 베이커이고, 눈녹아 바위산이 보이는 왼쪽산이 석산이다. 주차장에서 서로 자기말이 맞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 왜 그럴까? 잔소리 같지만 언제나 지도를 준비하자.

가는곳마다 거리와 시간을 확인하면 더욱 재미있다.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여러 하키코스가 있다. 멋진사진을 찍으려 주차장 맞은편 능선까지 올랐다. 마치 군주가 살던 성과 같은 모양이다. 맞은편에는 베이커산과 석산이 손에 잡힐듯 버티고있다. 석양빛을 받아들인 두산의 모습이 고풍적인 핑크빛이다. 사방에서 연신 사진기를 눌러댄다. 왕복 2시간을 힘들이지 않고 산보삼아 다녀오기에 좋다. 주의할것은 자동차로 올라가는 산길이 가파르다. 산

에서 내려오는 차량도 조심하자.

안전운전 수칙 ①언제나 헤드라이트를 켜다. ②천천히 달린다. ③산에 오르기전 기름을 가득채우고, 안전점검을 한다. ④승객은 운전자에게 많은 봉사(?)를 한다.

\*가는길: I-5 North/Exit 255 Mt. Baker/Hwy 542 East/28miles/Kendall/34miles/Baker주차장. 시애틀에서 출발하면 편도 2시간 30분 거리.

\*알아서 남주자: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는다. 차량 1대당 \$ 10, 유효기간은 1주일이다. 그런데 \$ 50짜리 Eagle Pass를 사면 1년간 미국내 어떤 국립공원(50개)이던 자유롭게 입장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Port Townsend

시애틀 관광에서 Ferry(자동차와 승객이 함께타는 배) 빼면 고무줄없는 팬티(알지유?) 주말에 이배를 타려면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 일단 배만타면 째름한 바다냄새에 콧구멍이 훅하니 뚫리면서 상큼한 기분이 된다. 시애틀에서 I-5 북쪽 Exit 177로 빠져 서쪽으로 가면 에드먼즈 페리터미날이 나온다. 자동차와 함께 배를 탈때 자동차의 크기와 탑승인원 에 따라 페리 탑승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다 건너 킹스턴(Kingston)까지는 30분. 배의 1,2층은 주차장, 3,4층은 객실, 식당, 전자오락기, 자판기등이 있다. 대형지도가 있어 오가는길을 상세히 볼수있다. 또 여러가지 무료 관광책자와 자료, 페리스케줄도 비치되어 있다. 갑판에서 커피한잔은 꿀맛이다. 만일당신이 음치라 할지라도 이배의 갑판에서 크게 소리쳐 노래를 불러도 좋다. 파도가 삼켜버려 옆사람에겐 전혀 방해되지 않을테니

까. 자동차 200여대를 싣는 이배를 타고 여행하는 즐거움은 가히 환상적이다.

지금 시애틀이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도시. 그러나 시애틀이 도시로 형성되기전 까지 [포트타운센드]가 가장 큰 도시(1850년대)였음을 기억하는 이곳 토박이는 그리 많지않다. 빅토리안 스타일의 건물들로 즐비한 이 도시에 들어서면 영화속의 주인공이 된듯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영화의 한장면을 연출하듯이. 그래서인지 여기서 촬영한 영화도 많다. 고풍의 건물들에 특색있는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상점들이 반겨준다. 이중에는 인디언 수공예, 조각, 장식만을 파는 가게도 있고, 반지와 목걸이만을 파는 가게,부엌용품, 고서점 등이 있다. 떠나기전 품나는 정장과 증절모를 준비하면 확실한 증명사진(?)을 찍을수 있다. 도시풍경과 어우러져 영락없는 영국신사가 될테니까. 이곳에서 자동차로 7분 거리에 있는 Fort Worden주립공원은 미국의 유명배우 리처드기어가 주연한 영화 '사관과 신사(Officer and Gentleman)' 를 촬영한 곳이다. 이 도시앞엔 퓨젯사운드가 있어 경관이 더욱 뛰어나다. 멋진 요트들이 정박되어있다. 낚시를 하면 씨알이 제법 굵은 물고기를 낚을수 있다. 매년 6월-9월 사이 보트쇼등 여러축제가 열리는데 이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제즈 페스티벌이다. (안내전화 800/733-3608, 360/385-3102)

☞ 바베리안빌리지 (Leavenworth)

낙엽지는 가을에 가장 멋진 곳을 손꼽으라면 역시 [독일마을]로도 알려진[Baverian Village]이다. 바베리안이란

독일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인들도 출신 지역에 따라 경상도 사람 또는 전라도 사람이라 부르듯이. 그러니까 독일남부 지방사람 즉 [바베리안]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고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도상의 지명은 [레븐월스]이다. 일할때 열심히 일하고 놀때도 화끈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대부분 체격이 우람하고 다혈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제일 많은 축제가 열리는 관광단지이며 가장 뛰어난 이민집단 마을이다. 바베리안들이 이 마을에 쏟아부은 개척정신과 단결력은 여타 이민집단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들이 처음 이곳에 정착한 것은 19세기말이다. 1892년 에버렛에서 2번 도로를 따라 동부 웨나치까지를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되면서 활기를 띠었던 이마을이 1920년 제재소가 문을 닫을 정도로 불황에 늪에 빠졌었다. 그들의 꿈은 늘 [고향과 똑같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불황은 계속되고 1950년부터 1960년초 까지 마을 입구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20여개 상점마저 찾는 손님 없는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 1962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orld Fair에 자극을 받은 이 마을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1966년 [바베리안 마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진다. 미국에 이민와 있던 독일계 특히 바베리안 혈통의 이민자들이 이 마을 건설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대거참여하게 되고 드디어 1972년 그들의 소원이던 [바베리안 빌리지]가 탄생하게 된다. 그들의 조상이 꿈꾸어 왔던 바벨이 80여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모든 건물은 전통 바베리안 스타일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진 특이한 형태로 지어졌다. 200여개 상점에는 유럽각국의 특유한 제품들이 즐비하다. 또한 식당에서 바베리안 정통식 식사와 독일맥주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조각, 미술품상이 많고, 언제나 줄이 늘어서 있는 모자가게, 뼈꾸기 시계, 목각인형, 인형가게등 [눈요기 쇼핑]만 해도 하루해가 훌쩍 넘어간다. 이중에는 교포(임용빈씨)가 운영하는 옷가게도 있다. 연중 축제가 열리는데 이중에서도 가을 단풍축제 (Autumn Leafestival 98/9/25-27 & 10/2-4)와 크리스마스 점등식 축제 (Christmas Lighting 12/5 & 12/12)가 가장 멋지다. 축제에 참가해 보면 행사기획과 진행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탄복하게 된다. [주먹구구]는 절대 용납치 않는 그들의 치밀함이 엿보인다. 배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들은 언제나 바베리안 전통 의상을 입으며 바베리안의 [프라이드]와 [활기찬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이마을 찾는 방문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가장 큰 즐거움은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폴카]이다. 갖가지 요들송과 정감의

흠뻑담긴 그들의 음악은 우선 템포부터 반박자나 빠르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치킨댄스], 스윙은 마을의 중심 팔각정에서 언제나 쉽게 목격할수 있다. 꼭 요들송과 러브송이 담긴 테입을 여러개 구입하자 신나는 귀로길을 위해. 이 마을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는 무궁무진하다. 사냥, 마운틴 바이크(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 크로스컨트리 스키, 급류타기(워터레프팅), 암벽등반 등이 있다. 2번 하이웨이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서 Sultan, Goldbar, Index, Skykomish 등 여러마을 지나 겨울에 가장 멋진 스키장이 개장되는 스티븐패스를 지나게 된다. 오가는 길이 험하니 특히 주의할것. 겨울철에는 반드시 스노우체인과 비상식량을차에 넣고 다니기 바란다. 가을철의 하이라이트는 스티븐패스를 넘어서면서 부터 좌우로 펼쳐지는 [불타는 단풍] 현재 이마을에 상주하는 바베리안은 약 3천명. 매년 축제때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1만5천명 - 2만명이나 되고, 12월 크리스마스 점등식 축제에 최고 3만명이 몰린적도 있다. 모델은 물론 잠자리와 아침까지 제공하는 민박[Bed & Breakfast]도 많다. 그러나 주말은 언제나 만원사래. 대표적인 축제중에는 5월의Maifest, 6월 Craft Fair, 8월 Accordion Celebration, 9월 Salmon Festival, 1월 Bavarian Ice Festival 도 있다.

\*가는길 ① I-5 North/Exit 194 /Hwy 2 East (편도 120 miles) ② Seattle/I-405 N. /Exit 22/Monroe/Hwy 2 East(편도 105마일) ③ I-90 East/Cle Elum /Hwy 970 East/Hwy 97 North (편도 157마일)




**구이전문집**  
 깍두기갈비, 닭불고기, 허밀구이  
 새우구이, 연어구이, 은대구조림  
 굴파전


**단체손님 예약환영**  
 지하단체석완비

신성 레스토랑

(206)839-9292

1805 S. 316th St # 106 Federal Way, WA 98003

월~목  
 오전 11시~오후 10시  
 금~토  
 오전 11시~오후 11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10시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강석중 이사장 유철웅  
 외 임원 · 이사 임명



# 클레이사격의 정의와 유래



## 최원준

워싱턴주 한인사격협회 회장

### ◆ 스포츠 사격의 정의

살상의 도구로 발명되어 전쟁의 수단으로 발전되었던 총기의 사용목적은 전쟁이 아닌 경기력 경쟁에 따른 상호의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된 최고의 휴머니즘을 실현한 스포츠이다.

### ◆ 국내 사격의 유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총기가 도입된 것은 인조 6년 무진(1628)으로 네덜란드인 '존 엘타브레' (한국명:박연)가 그해 9월 동료 2명과 함께 제주도 표류 도착함으로써 그에 의해 (그는 원래 총기 제작자였다) 한국에서 화약과 대포를 제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사(正史)는 인조 9년 신미(1631)에 명나라로부터 돌아온 사신 정두원이 홍이포라는 무기를 최초로 수입했다고 적고 있어 이 시기가 총기 반입의 시초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사격역사도 총기가 도입된 16세기 무렵으로 볼 수 있겠다. 그후 1955년 2월 대한사격연맹이 세계사격연맹에 가맹하고 1960년 정회원국으로 승인받음으로서 정식 사격국가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갑순과 이은철이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주목받는 사격강국의 하나가 되었다.

### ◆ 클레이 사격

클레이 사격에는 스킵트(Skeet), 트랩(Trap), 더블 트랩(Double Trap)의 세종목이 있다(국제경기종목). 수렵에서 볼 수 있는 근거리 사격, 다각도 사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고안된 사격이라고 하겠다. 재빠르게 비행하는 표적을 조준하여 사격하며 작고 많은 알맹이로 형성된 탄알이 넓은 탄막을 이루면서 날아가 접시에 명중하면 접시가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클레이 사격은 선수 자신은 물론 관중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그리고 정식 경기 이외에 초보자를 위한 '아메리칸 트랩'과 가상 수렵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클레이'라는 종목이 있어 사격을 취미로 하는 동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 클레이 사격을 위한 장비

#### ◆ 총 기

클레이 사격에 적합한 총기는 상하쌍대로서 구경은 12계이지이며 수렵용과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 초크가 없으며

재질 및 기능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 많다. 종목별로 총신의 길이가 차이가 있으므로 트랩을 할 것인지, 스킵트를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한 후 총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먼저 트랩이나 더블트랩 종목을 선택했을 경우엔, 총신의 길이는 30인치 정도가 적당하며 스킵트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28인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면 된다. 가끔은 26인치의 총기를 쓰기도 한다. 총기의 가격은 천차만별로 100여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그중, 동호인들에게 적당한 것은 300~5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총기는 자신의 몸에 알맞게 조절을 해야 하며 자신의 신장, 몸무게, 체형에 따라 달라진다.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이 개머리판이 길고 무거운 총을 쏘면, 남보다 상당히 불리하게 되며 사격술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총기의 선택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 ◆ 총 탄(탄환)

경기용으로 쓰이는 실탄은 7호부터 9호까지 쓰인다. 트랩, 더블트랩 종목은 7호 혹은 7호 반이 쓰이며, 스킵트 종목은 9호 혹은 9호 반이 쓰인다. 실탄의 호수는 숫자가 높을 수록 산탄알의 숫자가 많아지고 대신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호수가 낮아지면 산탄알의 수는 적어지고 크기가 커진다. 그러므로 경기용 실탄은 짐승을 쏘는 수렵용 실탄보다 산탄의 숫자는 많고 대신 크기는 작은 것이 보통이다. 산탄알이 클 수록 파괴력이 크고 멀리 나간다고 볼 수 있어 원거리 사격인 트랩사격에는 7호나 7호 반이 쓰이는 것이다. 7호 실탄에는 대략 300알 정도의 쏘팔만한 동그란 산탄이 들어 있으며 스킵트용으로 쓰는 9호나 9호 반의 실탄에는 500알 정도의 많은 산탄이 들어 있다. 실탄은 25발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

#### ◆ 사격시의 복장과 에티켓

##### 사격시의 복장

다른 종목의 사격과는 달리 클레이 사격의 복장은 간편한 편이다. 우선 옷은 간편한 티셔츠에 기성품인 사격조끼를 입으면 되고, 바지는 편안한 평상복이면 된다. 그러나 귀를 보호하는 귀마개, 그리고 사격용 안경도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 사대에서의 에티켓

1. 사대에서는 항상 정숙해야 하며 통제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사대 안에서는 절대 금연이다.
3. 빈 총이라도 남에게 겨누거나 작동해서는 안된다.
4. 사대에 들어가기 전에 실탄을 충분히 준비하여, 사격중에 실탄이 떨어졌다고 옆사람에게 방해로 해서는 안된다.

5.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사격이 다 끝난 사람은 사선 밖으로 나온다.
6. 타인의 총기나 실탄에 손을 대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사격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사격경기 종류

#### ◆ 스킵트 사격

경기방식: 스킵트 경기는 보통 5명이 1조가 되어 반원내에 만들어진 8곳의 사좌에서 좌측의 '하이 하우스' (High House; 높이 약 10m)와 우측의 '로우 하우스' (Low House; 높이 약 3m)에서 다양한 각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사격하는 방식이다. 사수는 1번 사좌부터 위치하고, 총 개머리판을 허리띠까지 내려서 준비자세를 취하였으면 'Pull!' 또는 '아!' 하는 신호를 한다. 그러면 두 하우스에서 표적이 방출되고, 1표적/1발로 명중시켜야 하며 재발사는 없다. 표적은 각 사좌에서 1개씩 총16개, 그리고 1.2.6.7사좌에서 각각 2개씩 총 8개가 방출되며, 만약 놓친 표적이 있으면 25번째 사격에서 반복되며, 놓친 표적이 없으면 8사좌에서 1개의 표적을 사격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1번에서 8번 사대까지 지정된 발수를 사격하면 1라운드(25발) 사격이 끝나게 된다. 초보자들은 두 하우스에서 표적이 동시에 방출되면 어느 것을 먼저 쏘아야 할지 당황하지만, 항상 날아가는 것을 먼저 쏘고, 날아 들어오는 것을 후에 쏘면 된다. 조사에 따르면 초보자의 경우 처음에는 25발중 11발을 명중시키고, 점차적으로 20발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표적의 비행속도는 대략 60-80km/h 정도이며 비행거리는 40m정도이므로 눈 깜박할 사이에 표적이 사라지므로, 표적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 스킵트 사격은 본래 사냥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할 정도로 빠른 순발력이 필요하며, 각도가 다양하여 기초과정과 틀만 익히면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 사용 총기

스킵트 경기는 12계이지 이하의 모든 산탄총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 경기에 사용되는 총기는 두 발 연속 사격이 가능해야 하며 보통 28인치의 총열을 가진 총을 사용한다.

#### ◆ 유 래

"Skeet"의 어원은 영어의 "Shoot"에 해당하는 스칸디나비아 말에서 유래된다. 1926년, 이 새로운 게임에 대한 이름 공모전에서 "Bang", "Bye Bye Blackbird" 등 수천개가 넘는 안이 있었지만, Gertrude Hurlbutt라는 주부의 기획안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스킵트 사격은 한때 열성적 업조가였던 Charles E. Davies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이것은 그가 수렵에서 놓쳤던 새의 날아가는 각도를 그대로 표적으로 연습하여 사격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계장치였다. 처음에는 반지름 25야드 내에서 시계의 시침에 해당하는 곳에 사좌를 만들어 놓고 사격하였다. 1923년에 원의 반지름이 25야드로 줄었고, 결국에는 현재의 모양과 같은 반원으로 되었다. 초창기에는 스킵트 사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총기와 탄알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꽤 저조하였다. 표적도 처음에는 손으로 직접 날려주었지만, Connecticut이, "Pull!"이라고 외치면 하이 하우스에서, "Mark!"라고 외치면 로우 하우스에서 표적이 방출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현재의 음성인식 기계장치로 발전된 것이다.

#### ◆ 트랩 사격

경기방식: 트랩 사좌는 1번에서 5번까지의 5개의 사좌가 있고 감적호에는 한 사좌에 3대씩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모두 15대의 방출기계가 위치한다. 사좌에서 사수는 준비자세를 취하고 'Pull!' 또는 '아!'하고 신호를 보내면 감적호에 있는 방출기 3개 중 1개가 신호음과 동시에 작동하여 표적이 비행한다. 이 때 사수는 표적의 비행방향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트랩사격은 한발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재사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번에서 5번까지의 사격을 하고, 이를 5번 반복하면 1라운드 25발 사격이 끝나게 된다. 비행거리는 약 70M 정도이고 속도는 100km/h로 대단히 빠르므로 높은 집중력과 빠른 반사신경이 요구된다. 사용 총기: 트랩 경기는 12계이지 이하의 모든 산탄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기에 사용되는 총기는 2발의 연속사격이 가능한 속사성을 가지는 쌍대총(Two Barrel)이나 자동총(Auto Gun)이라야 한다. 보통 30인치의 긴 총열을 사용한다.

#### ◆ 아메리칸 트랩

정식종목은 아니며, 동호인들과 초보자를 위한 쉬운 종목이다. 트랩 경기와 유사하나 비행 속도가 느리며 각도는 거의 없는 종목으로 동호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틀은 없으며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경기를 한다. 같은 방향으로 표적이 비행할 수도 있고, 트랩 종목처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며 즐길 수도 있다. 사격 방법은 트랩과 거의 동일하나 비행거리가 약 40-50m 정도이며, 속도는 약 40km/h 정도로 사수가 총을 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 클레이 사격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는 이 종목을 꼭 거치게 된다.

#### ◆ 스포팅 클레이



경기방식: 클레이 사격중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말해지는 사격 종목으로, 규격 지어진 사격장안에서 하는 타 종목과는 달리 산이나 들, 계곡 등 어느 장소에서나 이동식 기계를 설치하여 언제, 어느 방향에서 표적이 비행할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크로스 컨트리식의 종목이다. 표적의 비행도 단순히 정해진 방향과 각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움직여서 실제 사냥을 하는 것처럼 사격의 재미를 최고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재미 위주의 경기라고 할 수 있다. 5~6명이 1조가 되어 사좌를 이동하면서 사격하는 방식으로, 12~18사대로 구성된다. 12사대의 경우 50발, 18사대의 경우 75발을 기준으로 1발당 1점씩 계산한다. 트랩이나 스킵트와는 달리 초크가 있는 수렵용 총기가 허용되며,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총 개머리판은 어깨 밑에 두고 총구를 아래로 향하고 시작해야 한다. 사좌에서 사격수가 소리를 치면 표적이 1~3초 후에 방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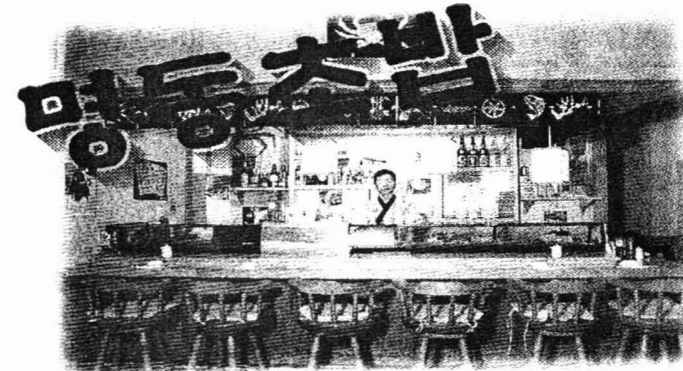
유래: 스포팅 클레이는 약 60여년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초 미국에 소개되고 나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수백군데 이상 스포팅 클레이 사격장이 있고, 크고 작은 슈팅클럽 등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경기장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 문화체육부 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사격대회

주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관: 생활체육 전국 사격연합회.  
경기방법: 트랩 사격, 스킵트사격, 더블트랩사격 A트랩 사격.  
단체경기: 시 도 대항전(트랩, 스킵트, 아메리칸 트랩, 더블 트랩) 클럽 대항전(종목: 트랩, 스킵트, 더블트랩)

◆ 올림픽 클레이 사격

경기종목: 1) 남자-트랩, 더블 트랩, 스킵트, 10m 러닝타겟 2) 여자-더블 트랩. 경기방식 1900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표적으로 했으나, 한 회로 끝났다. 이 올림픽에서 Leon de Lunden은 21마리의 비둘기를 죽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된 종목으로 남녀 더블 트랩이 있는데, 선수들이 '당겨'라고 외친후 시속 80km로 공중에 쏘아올려진 클레이 표적을 맞추는 것이다. ■



- ◆ 각종구이 및 왕갈비 (된장찌개 서비스)
  - ◆ 사시미
  - ◆ 하우스 스페셜
  - ◆ 각종일식
  - ◆ 각종전골
  - ◆ 냉면
  - ◆ 한식일체
- ※하드리커: 소주, 맥주, 양주 각종 정중

(425)741-1000

14920 Hwy 99 Suite #100Lynnwood, WA 98037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노스웨스트 인터내셔널 은행



NW International Bank에서는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합니다. 저희는 비즈니스와 개인 금융업무를 모두 취급합니다.



김승애(씨니)  
(비즈니스 개발담당)  
(206)676-3074

노스웨스트 인터내셔널뱅크

Metropolitan Park West Tower  
1100 Olive Way, Suite#102., Seattle, WA 98101  
Main Telephone:(206)676-8880  
Fax:(206)676-8881  
www.nwib.com

◆ 손님 여러분의 모든 은행업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봉사하겠습니다.

**9개월 정기에금**  
Rate 5.93%  
Annual Percentage Yield 6.10%

Rates effective 10/20/99. Minimum amount to open: Autumn Savings \$1,000.00. Different terms and rates are available for our Junco CD of \$100,000.00 and over. For further details, please call our Customer Service Department. Early withdrawal subject for penalty.

**비즈니스 Checking 개설시**

6개월간 무료 Checking 서비스 또는 수표 Value Pack을 제공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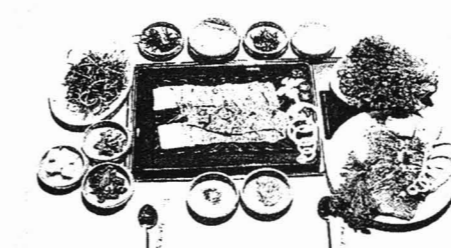
**개인구좌 개설시**

Free Initial Check  
No Service Charge  
No minimum Balance  
Free ATM Card

SBA 용자, 주택용자, 상업용 부동산용자, 호텔/모텔 용자, 스몰비즈니스용자, 국제송금, 저축, 마니마켓

# 미락

Mi Rak Korean Restaurant



깔끔한 밑반찬과 정갈한 음식으로 소문난 미락식당이 노스웨스트 항공사 공식 기내식 식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함없는 맛과 친절로 여러분을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 **즉석구이**  
통갈비 · 곱창구이 · 모듬구이  
차돌백이 · 양구이 · 주물럭등등
- **한식전문**  
낙지국수 · 즉석전골 · 즉석냉면  
알탕찌개 · 아구찜 · 은대구 조림 등등

(253) 839-6522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다나프라자 내)



에니악을 제작한 모클리와 에커트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적용한 에드바크(EDVAC)를 1950년에 완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에드바크와 에니악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에드바크는 정보를 10진

◆ 이데아

에니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명령어를 입력하여 컴퓨터의 외부에서 넣어주는 프로그램 언어로써 사용되었습니다. 에니악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인 에드바크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마찰내 1949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프리스윙클스에 의하여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46년 폰 노이만의 제안에 따라 프로그램 컴퓨터를 노이만의 기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이만의 제안에 따라 프로그램 컴퓨터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크기는 컴퓨터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크기는 따라서 그 기능은 오늘날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방식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많은 열을 발생시켜 냉각과 출력은 전원 카드를 이용하여 산란 방법과 순서를 미리 부호화한 숫자로 하는 제1세대 컴퓨터는 회로 구성 소자로 전원관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입출력과 출력은 전원 카드를 이용하여

◆ 이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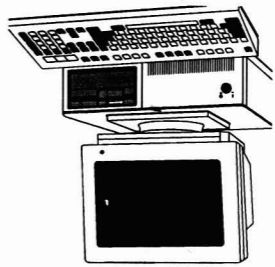
에니악을 만든 모클리와 에커트가 세 문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을 무렵, 그들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헝가리 출신의 미국 수학자인 폰 노이만이 파견되었습니다. 1946년 폰 노이만은 외부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를 대신하여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의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에니악은 고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성능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산 명령을 의부에서 넣어 주어야 하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은 사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은 바꾸는 일이 잦게는 4, 5시간에서 길게는 이를 이상 길리기도 하여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프로그램 외부에서

에니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명령어를 입력하여 컴퓨터의 외부에서 넣어주는 프로그램 언어로써 사용되었습니다. 에니악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인 에드바크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에드바크와 에니악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에드바크는 정보를 10진

에니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명령어를 입력하여 컴퓨터의 외부에서 넣어주는 프로그램 언어로써 사용되었습니다. 에니악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인 에드바크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에드바크와 에니악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에드바크는 정보를 10진

에니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명령어를 입력하여 컴퓨터의 외부에서 넣어주는 프로그램 언어로써 사용되었습니다. 에니악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인 에드바크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에드바크와 에니악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에드바크는 정보를 10진

◆ 제 1세대 컴퓨터



컴퓨터의 발전사

이 방식이 개발됨으로써 계산이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해졌습니다. 이 때에는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프트웨어는 그리 중요시되지 않았습니

◆ 제 2세대 컴퓨터

1948년, 미국의 쇼클리 등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함에 따라 컴퓨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58년 이후로 트랜지스터로 구성 소자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트랜지스터 회로로 만든 컴퓨터를 제2세대 컴퓨터라고 합니다.

◆ 제 3세대 컴퓨터

1960년대 후반에는 미니컴퓨터라 불리 는 작은 컴퓨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대형 컴퓨터보다 훨씬 안전 으므로 보급되었으며, 이 때문에 컴퓨터는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IBM 360 등이 제3세대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에 적집 회로(IC)를 사용하여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 개발된 컴퓨터를 말합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3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 제 4세대 컴퓨터

반도체 기술의 근본적인 발전에 따라 고집 회로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개발되어, 컴퓨터 에도 적집 회로 대신 고집 회로 적집 회로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고집 회로를 사용하여 제4세대 컴퓨터가 등장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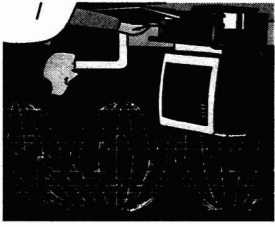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4세대 컴퓨터의 회로 구성 소자는 트랜지스터 대신 적집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상품이나 자 본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메일을 쏟아져 나오는데 수 없이 많은 양의 정보에 대한 처리가 커



컴퓨터의 발전

컴퓨터의 발전은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제5세대 컴퓨터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컴퓨터의 발전은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제5세대 컴퓨터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컴퓨터의 발전은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제5세대 컴퓨터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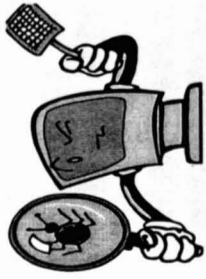
컴퓨터의 발전은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제5세대 컴퓨터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컴퓨터의 발전은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제5세대 컴퓨터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정리하며, 처리 가능한 때에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 모든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준다. 즉 컴퓨터는 현장에 서 발생하는 자료들을 직접 입력시키거나, 자료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입력 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는 수학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 비교, 판단 등 다양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자료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 컴퓨터의 특징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순서와 명령을 부호화한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완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현재 1초 분의 1초(피코 초)에 이를 정도로 빨라져서, 1초 동안에 몇백만 가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단히 큰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양이 많고 복잡한 자료라도 정밀하게 비교하고 판단하여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 냅니다. 또한 컴퓨터는 많은 양의 자료를 영구히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 기억장치의 하나인 자기 디스크 하나에 몇억 개의 문자를 기억시킬 수 있으므로, 예전에 비하여 데이터 처리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컴퓨터

터는 여러 가지 명령어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며,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력 기능, 제어 기능, 기억 기능, 연산 기능, 출력 기능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야만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입력 기능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나 처리 방법과 절차를 내부로 읽어 들이는 기능입니다. 입력 기능은 입력 장치에 갖추어져 있으며, 사람의 눈, 코, 피부 등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제어 기능

프로그램의 명령을 하나씩 쓰고 해석하여, 모든 장치의 동작을 지시하고 감독,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제어 기능은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이러한 제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자동성을 갖습니다. 제어 기능은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부에서 담당하며, 사람의 몸의 균형, 운동 조절 작용을 하는 작은골과 반사 운동 조절 작용을 하는 숨골에 해당하는 일을 합니다.

### 기억 기능

입력 장치로 읽어들이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중간 결과 및 처리된 결과를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기억 기능은 중앙 처리 장치의 주기억 장치(내부 기억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외부 기억장치)에 갖추어져 있으며, 사람의 큰골의 기억 중추가 하는 일을 합니다.

### 인산 기능

기억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꺼내어 산출 연산이나 논리 연산 등을 하는 기능입니다. 연산 기능은 중앙 처리 장치

### 운영 체제의 역할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에 기억되고, 그 밖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다.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은 필요할 때마다 감독 프로그램의 호출에 의해 주기억 장치로 옮겨져 말은 일을 처리하고, 처리가 끝나면 시스템 제어는 다시 감독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컴퓨터가 사용할 데이터의 유지, 보호,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프로그램이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주변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메시지를 사용자들에게 보낸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여러 주변 장치의 구조를 모르더라도 그 기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작업 제어 프로그램 컴퓨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차례차례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의 시작, 실행, 종료 등 작업 실행의 흐름을 계획하고, 자원의 할당,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정보 교환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작업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에는 먼저 입력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작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여기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각 작업마다 일정한 시간을 할당하여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제어 프로그램의 감독, 지원 아래 실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프로그램들을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입력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감독 프로그램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만 작동할 수 있다. 컴퓨터를 가동시키면 감독

운영 체제(OS)는 대부분의 컴퓨터 설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컴퓨터 내의 여러 가지 자원들의 관리와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운영 체제는 컴퓨터의 사용자와 하드웨어의 중간에 위치하여 자동적으로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을 불러 내고, 특수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번역하며, 또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리해 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하드웨어 특성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도스(DOS), 윈도우즈(Windows)가 바로 운영 체제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날의 운영 체제 속에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 있지만 이들은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의 동작을 감독, 지원하는 관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으로, 감독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제어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다. 목적 프로그램이 연계 편집에 의해 실행 가능한 형태로 출력된 것을 실행 가능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인어 자리 프로그램

사용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기라고도 한다.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어 준다.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여 명령을 실행시키는 번역 프로그램을 말한다. 포트란, 코볼, 알골, 파스칼, 피델 등 대부분 고급 언어가 여기에 해당된다.

인터프리터는 사용자가 자판을 통해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명령을 입력하면, 명령 단위로 번역하여 실행시키는 번역기를 말한다. 베이식 APL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컴파일되는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램보다 실행 속도가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기 때문에 오류 수정이나 프로그램 변경이 쉽다. 유틸리티 프로그램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 컴퓨터 제작 회사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프로그램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덜어 주고, 업무 처리의 능력을 높여 준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기계어로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연계 편집 프로그램, 자기 디스크 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기억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복사해 주는 파일 변환 프로그램, 하나의 파일에 기억된 레코드를 일정한 항목



의 값에 따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분류하거나, 2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정렬 병합 프로그램이 있다.

### 중앙 처리 장치의 역할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두뇌의 지시와 제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판단, 계산 등의 기능을 가지며, 정보와 처리 결과 등을 기억하는 역할도 합니다. 컴퓨터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는 주기억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등 3개의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

컴퓨터 내부에 기억될 자료나 명령들은 입력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전달되어 기억됩니다.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들은 차례차례 제어 장치로 보내어지고, 제어 장치는 명령들을 하나씩 해독한 뒤 그 명령을 실행하며, 계산이 필요한 자료는 연산 장치로 보냅니다. 그리고 연산 장치에서 계산된 자료의 결과는 다시 주기억 장치로 보내어집니다.

### 주기억 장치의 기능

주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에 내장되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또는 처리 결과 등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다고 해서 내부 기억 장치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주기억 장치는 그 구조가 기억 매체, 번지 선택 회로, 기록 회로, 판독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 소자는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자성체와 반도체를 사용한다. 자성체에는 자기 코어(마이네트 코어), 자기 박막, 자기 버블 등이 있고, 반도체에는 직접 회로가

있다. 최근에 생산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주기억 장치로 직접 회로를 사용하고 있다.

### 자기 코어

자기 코어는 도넛 형태의 작은 자성 물체로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상태로 자화(자기 유도에 의하여 물체가 자성을 띠는 현상을 말하며, 자성체가 자장 속에 놓여 있을 때 일어난다.)되는데, 이 두 상태에 각각 1과 0을 대응시켜서 이용한다.

자기 코어 기억 장치에서 많은 코어를 모아 평면에 규칙적으로 배열한 판을 코어판이라 하며, 몇 개의 코어판을 입체적으로 쌓아 놓은 묶음을 코어 스택이라 한다.

컴퓨터가 1바이트(8비트)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종일 경우에는 9개의 코어판을 필요로 한다. 자기 코어 기억 장치는 제 2세대 컴퓨터와 제 3세대 컴퓨터에 사용되었는데, 실행 속도는 빠르지만 1비트당 1개의 자기 코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 기억 장치에서는 많은 양의 자기 코어가 필요했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직접 회로

1970년대 이후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억 장치들이 점차 반도체 기억 소자인 직접 회로로 대체되었다.

반도체로 만든 기억 회로를 플립플롭 회로라고 하는데, 플립플롭 회로는 자기 코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억 소자는 부피가 작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처리 속도 또한 대단히 빠르다.

반도체 기억 장치는 게이트들의 연속으로서 전도(열 또는 전기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 가는 것)조건인 가, 아닌가로 비트 (0과 1) 상태로 표시한다. 반도체 기억 소자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롬과 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ROM(Read Only Memory)

ROM은 말 그대로 읽기만 할 수 있는 메모리로서 전원의 공급이 차단되어도 지원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ROM은에 기억된 내용은 컴퓨터 제작 당시에 입력되며,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운영체제(OS)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 RAM(Random Access Memory)

RAM도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사용자가 임의로 내용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메모리(그래서 RWM => Read Write Memory의 약자)로서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 절대 번지와 기호 번지

주기억 장치에는 데이터가 기억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위치마다 번지가 부여되어 있다. 절대 번지는 컴퓨터를 생산한 측에서 주기억 장치를 구성할 때, 데이터의 기억 단위인 바이트나 워드 단위마다 8진수나 16진수로 번호를 붙여 놓은 것이다. 절대 번지는 사용자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기호 번지는 데이터가 기억된 장소나 기억될 장소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의로 잡아 주는 번지이다.

### 제어 장치의 기능과 구성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프로그램의 명령들을 차례대로 읽어서 이를 해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컴퓨터의 동작에 필요한 모든 제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제어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 레지스터로 명령을 가져오는 명령 인출 단계와, 이것을 해독하여 필요한 신호를 발생시켜 명령대로 처리를 하는 명



령 실행 단계를 반복합니다.

제어 장치는 명령 계수기번지, 번지 레지스터, 기억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로 구성됩니다. 명령 계수기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지스터로서, 다음에 실행하게 될 명령이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주기억 장치의 번지르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번지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에서 선택된 번지를 보관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기억 레지스터는 명령 레지스터나 명령 계수기가 지정하는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명령 계수기가 지정하는 번지에 기억되어 있는 명령어를 호출해서 해독하기 위해 명령어를 잠시 보관해 두는 특수 목적 레지스터입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명령부와 번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부에는 곱셈, 덧셈 등의 실행명령코드가 들어 있고, 번지부에는 실행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주기억 장치의 번지가 들어 있습니다.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터의 명령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의 조합 (0과 1)에 의해 어떤 명령인가를 해독하는 회로입니다.

### 연산 장치의 기능과 구성

연산 장치는 산술연산 및 논리연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요소이다. 연산 장치는 레지스터에 기억된 데이터들을 입력받아 연산을 한 후, 그 결과를 지정된

레지스터로 보낸다이 때 필요한 제어 신호는 제어 장치에서 통제한다.

연산 장치는 기억 레지스터, 산기, 누산기, 비교기 등으로 구성된다. 기억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로부터 읽어들이는 데이터를 임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가산기는 컴퓨터에서 덧셈을 하기 위한 장치이며, 덧셈 결과는 누산기에 저장된다. 누산기는 연산 장치가 가산기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말한다.

비교기는 기억 레지스터의 내용과 누산기의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비교를 하여 '보다 작다' '같다' '보다 크다' 등의 조건들을 정한다. ■

- 최신 컴퓨터 장비
- 일본차
- 유럽차
- 미국차 등...

# APM 자동차 정비공장

(Auto Performance Maintenance)

여러분의 차의 생명을 정직과 신용과 성실로 보호해드립니다.

- 엔진 및 트랜스미션 잡
- 컴퓨터 다이어거노시스
-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디서빙 서비스
- 토잉 및 중고차 매매

- State Certified Emission Specialist
- 오일 체인지
- 튜업
- 브레이크 서비스

(206) 672-0307

20303 Hwy 99 Lynnwood, WA 98036

Business Hours  
월요일~금요일 8:00~6:00  
토요일 9:00~4:00





# 벽, 지붕 문제가 있다



지은정  
Remax Realty

주택 중개업을 십여년 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미국식 주택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것인데 먼저 벽을 보면 벽돌과 나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압축하여 만든 사이딩(외벽널빤지)으로 되어있다.

문제의 LP 사이딩이란 걸로 보기에 나무와 같으나 이것은 나무의 섬유와 수지를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으로 부식되어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 때문에 보상 claim이 잇따르고 있는데 처음 소송이 시작된 것은 1995년이였다. 시간이 갈수록 엘피 사이딩 뿐만 아니고 벽 널빤지나 지붕을 씌우는 널빤지까지도 같은 문제로 클레임을 당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모든 회사가 비슷한 문제로 보상 청구가 되고 있으므로 이중에서도 제일 소비가 많이 되었던 엘피 사이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LP( Louisiana-Pacific Corporation) 회사에서 생산된 주택이나 건물의 외벽에 부치는 널빤지(사이딩)를 말한다. 문제는 요즈음같이 자주 비가 내리면 널빤지가 축축해지면서 조금씩 부풀어 올라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눈으로 식별하려면 널빤지의 밑부분을 위로 올려다 보아야 한다. 부식하기 시작하면 잔잔한 금이 생긴다. 심하게 되면 널빤지가 부풀어 있고 또 버섯이 돌아있는 것을 보게된다.

엘피 사이딩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사용됐고 보상 청구는 2002년까지 받는다고 하나 너무나 많은 보상 청구로 인해 지금은 보상자금이 거의 바닥나 보상 지급을 정부에 의뢰하기 위해 정부와 소송중에 있다고 한다.

엘피 사이딩 클레임 신청 전화번호는 1-800-245-2722이다. Masonite Woodruf Roofing 회사는 지붕을 이음하는 널빤지를 만드는 회사이다. 1980년부터 지붕에 사용되어 왔는데 나무의 섬유질로 만들어진 MW 루핑은 우리네 기와지붕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정교하게 보인다. 그러나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서 LP사이딩과 비슷한 부식이 나타나게 된다. 이 회사에서도 1999년 1월부터 클레임을 받고 있으며 클레임 신청 전화번호는 1-800-256-6990이다. 이외에도 클레임을 받고있는 벽널판 회사로는 Abitibi Price Siding 1-800-334-3551, Cladwood Siding 1-800-572-3897, Temple England 1-800-231-6060 이 있고, 좀더 상세한 문의를 원하거나 한국말 상담을 원하면 (206) 954-9667 로 전화하면 된다.

하이히브이 빌가을 지심으로 축하합니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회장 김기종 이사장 은평군 의 임원 이사 일동



# 시애틀 한인회를 알립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회  
사무총장 김기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20세기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인지 유난히도 감회가 깊다. 한인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도대체 「한인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황당한 기분이 든다. 여태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 끝에 이번 한인회보에 한인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시애틀 한인회는 33년 전통의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로 초대회장에 고 이창희 선생께서 수고하신 이래 현 강석동회장이 33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33년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전직 회장단, 이사장단들의 노고가 이어져 현재에 와있고,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단연코 우리 교민의 힘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한인회의 주요활동 및 사업으로 3.1절 기념식, 8.15광복절, 회장배 축구대회, 골프대회, 씨폐어 행사, 아리랑의 밤 등의 고정적인 행사와 경로잔치, 컴퓨터 교육, 시민권 교육, 기초영어반, 불우이웃돕기등이 주요행사 및 사업이다. 그외에 미주류사회 행사에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그들과의 유대관계에 힘을 쏟고 있다. 간단히 행사 및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3.1절 기념식, 8.15 광복절 행사는 이곳 총영사의 참석으로 본국의 대통령 기념사를 낭독하고 조국 광복에 목숨바친 선조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이다. \*회장배 축구대회 및 골프대회는 이 지역 스포츠 행사에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려하면서 교민들과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씨폐어 행사는 미전국의 5대 퍼레이드중의 하나인 씨폐어 퍼레이드에 한인회가 거의 매년 참가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날은 많은 교민들이 다운타운에 직접 나와서 한국팀이 지나갈 때 열렬한 박수로써 환호하며 한마음이 되는 시애틀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다.

\* 경로잔치는 이쪽지역 5개 노인회 및 일반 노인들 5백여분을 모시고 식사대접, 흥겨운 노래자랑, 그리고 가수들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신나는 춤과 장기자랑으로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노인들을 위한 잔치이다.

\*컴퓨터 교육은 교민들의 컴맹탈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벌이는 사업의 하나로 연 1백여명 정도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시킴으로 이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은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이어서 무료 강의하는 강사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시민권 교육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교민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게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와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아리랑의 밤은 한해를 마감하면서 친구 집행부 및 이사단, 그리고 일반교민들이 함께하는 위안의 밤으로 이날 만큼은 한데 어울려 그동안 수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새로 일할 집행부를 격려하는 자리이다. 그외에 많은 행사 및 사업이 한인회의 몫이다.

이런행사를 치르면서 제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재정이다. 한인회의 재정확보는 한인회비, 이사회비, 기부금, 그랜트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1년 소요예산은 보통 10만불 정도이며 별도로 큰 행사가 있을 때 한인업소 및 개인이 후원해 주는 물품, 기부금은 행사때에 아주 요긴하게 쓰여진다. 특히 경로잔치, 아리랑의 밤등 교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업소 및 개인이 내놓는 경품을 추천하여 푸짐한 상품으로 제공된다.

이번 기회를 빌려 한인회에 도움을 많이 주는 지사, 상사, 개인 업소,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별지에 있는 후원업소나 지·상사를 교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어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시애틀 한인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큰 건물로 이사를 갈수 있는길은 모든분들이 연회비(20불)를 납부하셔서 현재 우리들의 재산인 회관을 잘 관리하여 더욱 큰 재산으로 우리들의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교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호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니버시티 빌리지 꽃집

206/525-7422

UNIVERSITY VILLEGE FLOWER

3401 25TH AVE NE SEATTLE, WA 98105



### 역대.현 한인회장

대	연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1968	이창희		465-3572	고인
2	1969	이선복	7222 41st NE Seattle, WA 98125	(206)621-4405	
3	1970	전계상	10064 43rd Pl NE Seattle, WA 98125	(206)527-6123	
4	1971	이현기	188207 89th Ave. Edmond, WA 98206	(425)775-8009	
5	1972	이현기	188207 89th Ave Edmond, WA 98206	(425)775-8009	
6	1973	한만섭	12904 SE 45th Cane Bellevue, WA 98006	(425)641-5739	
7	1974	구범희	561-12nd Ave N. Edmond, WA 98020	(425)778-1267	
8	1975	신호범	8910-189th Pl SW Edmond, WA 98275	(425)546-4736	
9	1976	김성길	18233 155th Pl SE Renton, WA 98059	(253)225-3006	
10	1977	김형진			서울 거주
11	1978	김형진			서울 거주
12	1979	조성욱	8720 144th St. NE Bothell, WA 98011	(425)823-0734	
13	1980	정철식	11316-18th Pl SW Seattle, WA 98156	(206)244-8449	
14	1981	강동언	6425 196th SW #302 Lynnwood, WA 98036	(425)640-9145	
15	1982	엄명보	1501 River View Dr NE. Auburn, WA 98002	(253)939-1171	
16	1983	신호범			
17	1984	오계희	12527 27th Ave NE Seattle, WA 98125	365-6845	
18	1985	오준길			타주 거주
19	1986	박태호	5032 125th Pl SW Mukilteo, WA 98275	(425)742-6997	
20	1987	윤광남	6116-130th Pl SE Snohomish, WA 98296	(425)746-6584	(206)406-2723
21	1988	최주찬	12532-12th Ave NE Seattle, WA 98125	(206)364-7301	타주 거주
22	1989	한원섭	1616 NW 185th St. Shoreline, WA 98177	(206)542-0555	
23	1990	장동식			고인
24	1990	곽종세	19603 11th Ave Seattle, WA 98177	(206)546-6164	
25	1991	한상국	9243 15th Ave. Seattle, WA 98106	(206)763-0485	
26	1992	이광술	34534 16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253)946-3911	
27	1993	윤상인	11245 287th Pl Federal Way, WA 98003	(253)839-6022	
28	1994	김석민	16210 39th Ave NE Seattle, WA 98155	281-6010	
29	1995	강희열	1550 Aiki Ave SW #500 Seattle, WA 98166	(206)938-8363	
30	1996	민학균	16716 145th Ave SE Renton, WA 98058	(253)241-0066	
31	1997	장수강	2805 Chambersbay Dr. Steilacomm, WA 98388	(206)671-4015	
32	1998	김재영	29314 Pacific Hwy S.101A Federal Way, Wa 98003	(206)898-9246	
33	1999	강석동	11308-15th Ave NE Seattle, WA 98125	(206)364-2519	(206)299-3511



### 한인회 1999년 고문.자문.감사.이사.임원

- 고 문: 박태호 윤광남
- 상임이사: 이현기 신호범 강동언 오계희 한원섭 한상국 윤상인 강희열 장수강 한만섭 조성욱 최주찬 곽종세 이광술 김석민 민학균 김재영
- 자문이사: 이종찬 김홍열 김재희 김영수 정정이 유홍근 정운재 이진선 노정묵 김기종 이종식 심상연 고봉식 권오문 홍성은 홍천해 이정섭 문희동 최창만 김광식 강동만 이주영 이승식 김중환
- 감 사: 오영석 홍재웅
- 이 사 회
- 이 사 장: 유철웅
- 부이사장: 김영복
- 총무이사: 김영선
- 이 사: 강태식 이지홍 김정규 장태수 최병택 조윤식 이기덕 정승일 이찬주 김주호 김홍중 최성길 강운원 허남일 박재명 박동일 송태호 이진기 이용일 우양택 황선식 박승균 박재동 이영조 이창래 김상권
- 임 원 회
- 회 장: 강석동
- 수석부회장: 유병훈
- 부 회 장: 박동일
- 총 무: 안득찬
- 재 무: 최원준
- 체 육: 홍낙순
- 선 외: 임동주
- 사무총장: 김기현
- 사회복지: 스티븐 김
- 봉 사: 김의정
- 홍 보: 김육진
- 법 률: 박용석
- 사무국장: 한상국
- 경로분과: 이지선
- 여성분과: 지은정
- 청년분과: 김의진
- 교육분과: 김찬순 전신배
- 99년도 회관 관리위원회
- 위원장: 한원섭
- 위 원: 이지선 김기현 전연하
- NIC(시민권 준비위원회)
- 위원장: 한상국
- 위 원: Regina 채 스티븐 김 김의정 이지선

# 시애틀 한인회 1999년도 사업보고

1월 6일 신/구 회장 임무 인수, 인계 완료  
 9일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참석  
 11일 신호범 의원 취임식 참석  
 14일 시애틀 한인회 전직회장 모임  
 15일 오래곤 한인회장 취임식 참석  
 26일 신임회장, 이사장 취임식/시민권반 시관계자 모임  
 28일 이흥구 주미대사 주청사 만찬 참석  
 2월 2일 시민권반 시 관계자 모임  
 3일 시애틀 경찰 자문회의 모임 참석  
 4일 여성부동산 협회 세미나 참석  
 9일 각 언론사 방문  
 13일 송인호 교육원장 승별회  
 16일 아시아나 항공 직접장 점검  
 18일 한인회 임원 이사회  
 19일 상공회의소 총회 참석  
 20일 세탁협회 총회 참석  
 22일 KOAM-TV인터뷰  
 3월 1일 3.1절 기념식 거행  
 2일 컴퓨터 교육  
 4일 시민권반 NCI모임  
 10일 한인회 임원회의 참석  
 17일 상공회의소 상건례 참석  
 18일 워싱턴주 체육회 취임식 참석  
 19일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모임  
 22일 최주찬 전회장님 위로금 전달  
 23일 한인회 컴퓨터 강좌 개최  
 29일~31일 한인회 창립(한인회 전직회장단 모임)  
 30일 한인회 포스트 아우성 성교육 참석  
 4월 3일 코리아 기금 마련 골프대회 준비 모임  
 5일 한인회 차관 만찬 참석  
 14일 문교부 차관 참석  
 15일 GTE방문  
 25일 대전시 팔가정 준공식 및 만찬 참석  
 5월 1일 한인회 기금모금 골프대회 88명 참석  
 2일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11일 Federal Way시와 한국 동혜시 자매결연행사 참석  
 14일 김기진 박사 세미나(상공회의소와 공동주최)  
 17일~19일 한인회 컴퓨터 교육  
 19일 Marina Choe Honor Award 수여식 참석  
 26일 서북미 한인연합회 올림피아 행사 모임 참석  
 6월 1일 시애틀 경찰 자문회의 모임  
 3일 한국 KBS-TV는 '사랑을 싣고' 취재팀 한인회 방문  
 16일 워싱턴주 타이거스 어라이 야구단 창단식 참석  
 7월 6일 Seafair준비 셋벌 무용단(단장 최지연)모임  
 7일 6.25참전 기념비 행사문제 영사관 모임  
 8일 2000 인구조사 인터뷰  
 중앙일보 골프대회 참석

12월 KAPS 및 상공회의소 증권 및 투자 세미나 참석  
 13일 한인회 임원이사회(전반기사업보고 및 경과 보고)  
 22일 셋벌 무용단 Seafair행사 관계로 방문  
 24일 6.25 참전 기념행사 참석/그로서리협 야유회 참석  
 27일 Seafair 준비 임원회  
 28일 워싱턴주 체육회 회단식 참석  
 30일 Seafair행사  
 8월 1일 세탁협회 야유회 참석  
 2일 충청학생 42명 본회 방문 환영 만찬  
 3일 충청학생시애틀 방문 환영 점심  
 5일 상공회의소 골프대회 참석  
 9일 김덕룡 의원 오래곤 주 세미나 참석  
 10일 임원회(Seafair행사 평가 및 관복제작 준비)  
 12일 2002년 월드컵 준비모임 및 한인회 모임  
 15일 광복절 행사/수재의연금 모금 운동(\$900 모금)  
 27일 2002년 월드컵 준비모임  
 29일 한인회 및 상공회의소 합동 임원 야유회  
 9월 1일 전직회장단 골프대회  
 2일 2002년 월드컵 준비모임  
 8일 임원회(노인 잔치 준비)  
 11일 라디오 한국 개국 2주년 기념행사 참석  
 14일 시애틀 경찰자문회의 참석  
 15일 2002년 월드컵 준비 모임  
 15일~17일 컴퓨터교육  
 17일 KAPS사회단체 시상식 참석  
 20일 2002년 월드컵 문제로 주시애틀 총영사관 방문  
 21일 임원회(추석맞이 노인잔치 준비)  
 22일 신호범 박사 정치 장학금 모금행사 참석  
 25일 한가위 노인잔치 라디오 한국과 공동 개최  
 25일 한국방문(평화통일 지문회의)  
 10월 7일 임원회의(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발간문제 토의)  
 12일 총정 대전시 공무원 한인회 방문 및 만찬  
 14일 임원회(한인회보 발간 문제)  
 19일 컴퓨터 강좌  
 25일~29일 컴퓨터 강좌  
 30일 2002년 월드컵 준비 모임  
 11월 2일 2002년 월드컵 준비 모임  
 3일 2002년 월드컵 준비모임  
 4일 2002년 월드컵 준비모임과 언론사 방문  
 5일 WTO 및 NGO문제로 영사관 방문  
 6일 임원회(회보 및 아라람의 밤 준비 관계)  
 8일 한인생활상담소 기금 모음 만찬 참석  
 9일 한인회(전직 한인회장) 모임  
 11월 2002년 월드컵 준비 모임  
 12월 상공회의소 임원 이사회 참석  
 2002년 월드컵 워싱턴주 후원회 준비 모임 참석



시애틀 한인회 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회비를 납부에 도움을 주신 분들

Lee's Auto \$100.00	Steve Kim \$50.00	Sunny Kim \$50.00	Univ.V. Florist \$100.00
강병주 \$50.00	강복부 \$10.00	강세호 \$20.00	강세호 \$20.00
고건순 \$10.00	고광운 \$20.00	고봉식 \$50.00	고영섭 \$20.00
곽종세 \$100.00	권정 \$20.00	권영숙 \$10.00	권형국 \$20.00
김광조 \$10.00	김근영 \$50.00	김금향 \$10.00	김기최 \$10.00
김기현 \$216.97	김기홍 \$20.00	김남미 \$50.00	김대웅 \$20.00
김동백 \$20.00	김동준 \$20.00	김두근 \$20.00	김량여 \$10.00
김범부 \$20.00	김병진 \$20.00	김부덕 \$10.00	김분이 \$10.00
김상봉 \$20.00	김생려 \$10.00	김성빈 \$20.00	김수영 \$10.00
김순아 \$20.00	김승진 \$10.00	김연식 \$20.00	김연홍 \$10.00
김영민 \$20.00	김영득 \$500.00	김영자 \$10.00	김옥순 \$10.00
김욱진 \$20.00	김의정 \$25.00	김의진 \$20.00	김인광 \$20.00
김인배 \$20.00	김정부 \$20.00	김종식 \$20.00	김종진 \$20.00
김주호 \$20.00	김지용 \$20.00	김진원 \$20.00	김진희 \$10.00
김창현 \$10.00	김태복 \$100.00	김태산 \$10.00	김현선 \$10.00
김형수 \$10.00	김형중 \$20.00	김형호 \$20.00	김홍일 \$50.00
김홍재 \$20.00	노상준 \$20.00	노재룡 \$10.00	노정석 \$20.00
문두선 \$10.00	문상민 \$20.00	문성주 \$100.00	미술인협회 \$20.00
민광기 \$20.00	박성희 \$20.00	박길규 \$20.00	박숙경 \$20.00
박용석 \$20.00	박원모 \$20.00	박은연 \$10.00	박을연 \$10.00
박의도 \$20.00	박창복 \$10.00	박태호 \$100.00	박현석 \$20.00
배훈임 \$10.00	백인홍 \$100.00	백정우 \$20.00	변영수 \$20.00
변훈선 \$20.00	삼보설령량 \$50.00	천옥임 \$10.00	송병렬 \$10.00
송영태 \$10.00	신옥선 \$10.00	신호용 \$20.00	심상연 \$100.00
안금석 \$10.00	안득찬 \$33.99	안현준 \$10.00	양갑영 \$20.00
양반집 \$20.00	양득환 \$20.00	양철환 \$20.00	양철환 \$20.00
여병호 \$20.00	오병환 \$20.00	오수동 \$10.00	오영주 \$10.00
원우업 \$20.00	원호연 \$20.00	유명자 \$20.00	유병훈 \$50.00
유의진 \$20.00	윤광남 \$100.00	유명근 \$20.00	윤부원 \$50.00
윤영하 \$20.00	이간난 \$10.00	이간난 \$10.00	이건우 \$20.00
이경의 \$20.00	이금강 \$20.00	이대원 \$20.00	이대원 \$20.00
이덕재 \$10.00	이동립 \$50.00	이명자 \$10.00	이무열 \$10.00
이병구 \$20.00	이동수 \$10.00	이상수 \$50.00	이선녀 \$10.00
이성규 \$10.00	이승훈 \$20.00	이신애 \$10.00	이영하 \$50.00
이오감 \$10.00	이운남 \$10.00	이재균 \$10.00	이재균 \$10.00
이종권 \$20.00	이종만 \$20.00	이종현 \$20.00	이진선 \$20.00
이진환 \$10.00	이춘자 \$20.00	이택훈 \$20.00	이홍식 \$20.00
이희철 \$10.00	인수당 한의원 \$20.00	임종 \$20.00	임동주 \$20.00
장관진 \$20.00	장길수 \$10.00	장정숙 \$10.00	장진식 \$20.00
장진원 \$20.00	장태근 \$20.00	장태수 \$100.00	장현식 \$50.00
전경임 \$10.00	전면하 \$10.00	전수정 \$10.00	전신배 \$20.00
전희준 \$10.00	정귀채 \$20.00	정낙영 \$20.00	정동기 \$20.00



시애틀 한인회 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정양인 \$10.00	정윤환 \$20.00	정재원 \$20.00	정춘자 \$10.00
정택상 \$10.00	정홍진 \$20.00	조동호 \$25.00	조민호 \$20.00
조영수 \$20.00	존스이용 \$20.00	지은정 \$200.00	찰스이 \$20.00
최기규 \$10.00	최낙서 \$20.00	최선기 \$10.00	최원준 \$100.00
최익환 \$20.00	최일남 \$20.00	한상국 \$50.00	한성수 \$10.00
한성애 \$10.00	한순승 \$20.00	한원섭 \$50.00	홍낙순 \$100.00
홍선도 \$10.00	홍성민 \$20.00	홍순익 \$10.00	홍승주 \$20.00
홍정표 \$20.00	홍현성 \$20.00	황수영 \$20.00	황의천 \$20.00
황인덕 \$20.00	황태근 \$10.00	황호연 \$20.00	황보경호 \$20.00

▲이사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신 분

Young Cho \$300.00	강석동 \$3,500.00	강윤원 \$300.00	강태식 \$300.00
강희열 \$200.00	고봉식 \$300.00	권오문 \$200.00	김광석 \$300.00
김기종 \$200.00	김영선 \$300.00	김영수 \$200.00	김재영 \$300.00
민중기 \$200.00	민학균 \$200.00	박동일 \$500.00	박승균 \$300.00
박재동 \$300.00	박태호 \$300.00	송태호 \$300.00	우양택 \$300.00
유병훈 \$500.00	유철웅 \$2,500.00	이경원 \$300.00	이광술 \$100.00
이주영 \$200.00	이진기 \$300.00	이찬주 \$100.00	이찬주 \$200.00
이창래 \$300.00	정승일 \$200.00	정정이 \$200.00	최창만 \$300.00
허남일 \$300.00			

▲후원금을 도와 주신 분

AEA은행 \$200.00	Kim's Auto \$200.00	Lee's Market	UW 한인학생회 \$100.00
강동만 \$300.00	강태원 \$200.00	강석동 가족 일동 \$450.00	경로회-장성열 \$100.00
광동우회 \$200.00	그로서리협회 \$500.00	김성진 \$100.00	김기종 \$100.00
김양 \$200.00	김재희 \$200.00	나라은행 \$200.00	노원철 \$100.00
대한부인회 \$200.00	대한여행사 \$200.00	대한청년단 \$50.00	대한체육회 \$100.00
만선 \$100.00	명동회관 \$100.00	미락식당 \$200.00	박성수 회계사 \$200.00
박영민 \$100.00	박재명 \$200.00	사계절 \$200.00	서울약국 \$200.00
체탁협회 \$50.00	수재의연금 모금 \$718.00	송의여고 동문회 \$50.00	시티뱅크 \$800.00
신라식당 \$200.00	신성식당 \$200.00	씨니킴 \$300.00	아리랑 \$200.00
아카사카 \$200.00	암대문식품 \$200.00	양반집 \$200.00	양반집 \$100.00
여성부동산협회 \$300.00	옛골식당 \$200.00	오래곤 한인회 \$200.00	외환은행 \$300.00
워싱턴주축구협회 \$100.00	워싱턴주 한인 \$200.00	유철웅 이사장 \$700.00	유호승 머리사랑 \$200.00
이경섭 \$200.00	이상일 \$30.00	이승식 \$200.00	이영조 \$200.00
이정섭 \$200.00	일차집 \$100.00	장수강 \$100.00	존타 Club \$300.00
진스잡화 \$200.00	체육회 \$50.00	홍성은 \$500.00	총영사관 \$1,700.00
최병택 \$200.00	충청공무원 \$500.00	충청학생/임,직원 \$401.00	켄트 제일장로교회
\$100.00타이거스 야구단	\$100.00	타코마 한인회 \$100.00	미주총연 서북부 연합회 \$1,000.00
팔도비데오 \$100.00	팔도식품 \$500.00	평동 자문위원회 \$200.00	하일랜드 약국 \$100.00
한상국 \$200.00	한친회 \$300.00	한미부인회 회관사용료	호돌이마켓 \$200.00

<이상 11월말 현재>

# 주 에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서북미 10만 교포들에게, 신앙과 성경을 알기 쉽고, 깊이 있게  
풀어서 안내하는 방송 전도의 시간!  
라디오 방송!

## 『사랑따라 복음따라』

라디오 한국에서 만납시다

- 매주 토요일 7am-7:30 에베렛/린우드 AM 1230 타코마/웨더랄웨이 AM1450
- 매주 일요일 10:30pm-11pm 시애틀/벨뷰 AM 1540

에베렛/린우드 AM 1230  
시애틀/벨뷰 AM1540  
타코마/웨더랄웨이 AM1450



### 한성국 목사 목회사역

Calvary Temple에 속한 교회

2000년대에, 새 시대를 앞서가며,  
미 주류사회에 한인사회를 접목시키는 교회!

새 시대 예배안내  
이 미국교회는 70년된 교회,  
교인 1000여명에, 선교사업만도 100여명을 지원하는  
교회에서 한인교회를 세운 교회!  
찬양이 은혜롭고, 설교를 스크린에, 적을 수 있게 보이  
고, 듣고 알기 쉽게 인도하는 교회 예배에 온 가족이  
참석하세요!

- ◆주일 아침 9시: 젊은이 중심 예배(미국 예배)  
아침 11시: 전체 교민을 위한 예배(미국 예배)  
오후 1시 30분: 한인 1세를 위한 예배(한국어)
- ◆주중에 수많은 특별 주제의 Class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 한성국 목사

사무실  
휴대폰 206/229-9243  
지 택 206/763-0485  
팩 스 206/763-0484

## 갈보리 한인 연합교회



# 어느덧 25살이 되었습니다.

## 지난 25년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객 사업체 용자 요청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787-5551로 전화하셔서,  
이 영숙을 찾으시거나 아래 목록한 각지점의 SBA 용자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이 영숙  
(425)745-5933, Fax:(425)743-7866  
Voice Mail:(425)787-5551, Mobil:(206)948-6691

# CITYBANK

MEMBER FDIC

Construction Loans, Home Loans, Personal Loans  
Business & Personal Checking, C.D.s, Retirement Accounts  
VISA Check Card, Merchant Services, Investment Services



Financial Center  
North Lynnwood  
(425)745-5933

North Creek Office  
Bothell  
(425)486-9523

Ballinger Office  
North Seattle  
(206)363-7202

Mill Creek Office  
Murphy's Corner  
(425)338-4300

Lynnwood Office  
Downtown Lynnwood  
(425)775-5480